

# 여 세계

여성이 살리는 세상

2018년 제6호

두 세계,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004 **펴내는 글** | 젊은 여성의 눈으로 본 오늘, 그리고 미래  
이은영

007 **총론** | 1020 여성들, 그들은 누구인가  
1020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 한국사회를 바꾸다  
홍미희  
딸들의 반란, 당황하는 아버지, 멘봉인 나 :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김홍미리

037 **기획1** | 한국사회에서 1020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디지털 세계는 여성에게 무엇이었나  
하예나  
페미니스트 해고한다고? 페미니즘이 밥 먹여 준다!  
김예지  
예쁜 ‘인형’이 아닌 ‘사람’이고 싶다  
최선화  
언제까지 SNS에서 페미니즘을 배워야 하나요?  
권우영

063 **페미니스트 웹툰** | 차별은 비용이 따른다  
손아람

075 **기획2** | 한국사회 1020 여성 이슈들  
10대 여성들, 코르셋을 벗고 미투를 외치다  
김성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이다  
조진경  
청년여성에게 지역은 대안이 될 수 없나  
김김혜영

119 **YWCA 현장이야기** | 지역여성운동  
YWCA 지역여성운동, 왜, 어떻게 해왔는가?  
곽지영  
YWCA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해야 하는가?  
이숙진

153 **편집후기**  
김신애 김수진 김은경 원영희 조진경 조혜영

# 여성\*서 | 두 세계,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Cotents 2018  
6호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세』  
2018년 제6호

발행일 2018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YWCA연합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전화 02-774-9702~4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발행인 한영수  
편집인 유성희  
편집위원장 이은영  
편집위원 김신애 김수진 김은경 원영희 조진경 조혜영  
편집 박은실 이윤숙 최지영 김수연  
편집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ISSN 2289-0254  
정가 12,000원

# 젊은 여성의 눈으로 본 오늘, 그리고 미래

이은영

『여·세』 편집위원장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페미니즘이 10~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보여주는 여성에 대한 편향성은 수치로 보면 매우 비판적입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 격차지수는 0.650점으로 총 144개국 중 118위를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기준 고용률도 여성 56.2%, 남성 75.8%로써 격차가 무려 19.6%나 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차이가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 중위임금 격차도 36.7%로 OECD 평균(14.1)의 2.5배였습니다. 5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단체장 가운데 여성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도 8명으로 남성(218명)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인식

과 행동양식에 대한 편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현상에 반기를 들고 기존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여성에 대한 처우나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것은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세대입니다. 기존의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도되었다면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운동은 일반 대중이 주체로 등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형태로, 또 여성이 살아가는 현장 혹은 속해 있는 집단 내의 고정된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폭넓게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 젊은 여성 대부분은 민주화 이후 풍요의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이들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어도 말로는 성평등을 당연하게 배우고 그렇게 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 흔들리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입니다. 이들에게 페미니즘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답이 나올 때까지 실천해야 할 당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함께 이런 인식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호 『여·세』에서는 이러한 젊은 여성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여성주의에서도 젊은 여성과 기독교 여성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큼니다. 또 젊은 여성과 그들의 어머니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와 현상에 대한 시각차도 매우 큼니다. 완전히 다른 여성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의 여성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YWCA는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이러한 창립정신에 비추어,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시각과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기독교 여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1020 여성들, 그들은 누구인가

1020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 한국 사회를 바꾸다

홍미희

딸들의 반란, 당황하는 아버지, 멘붕인 나: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김홍미리

# 1020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 한국사회를 바꾸다

홍미희  
여성학자



## 1. 들어가며

지난 해 2017년에는 여성운동의 대표 단체들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30주년을 맞았다. 이들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변혁운동의 일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의 가장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다.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 가난한 도시빈민 여성, 가정에서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는 매 맞는 아내 등 여성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싸웠다. 여성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더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했다. 그들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성차별의 상징이었던 호주제의 폐지와 함께

성차별적 법과 제도는 사라졌고,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눈부신 여성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삶은 쉽지 않다. 여성운동의 성과와 함께 성장한 '82년생 김지영'은 여전히 독박육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 곳곳이 여성혐오로 가득차 있으며, 여성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조차도 일상화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운동의 제도적 성과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성차별 현실, 2018년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젊은 여성들이 '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여성혐오로 얼룩진 온라인 공간에서 '키보드'로 치러지는 치열한 '전투', 즉 '키보드 배틀'을 벌이고, 거리로 나와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전투는 거침이 없다. 일베식 언어로 일베와 맞장 뜨면서, 여자 일베라는 비난과 혐오가 대안일 수 있느냐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거침없는 언어뿐 아니라 수만 명을 거뜰히 동원해내는 그들의 '화력'으로 한국사회를 적잖이 당황시키면서,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성세대가 느낄 불편함을 예측이나 한 걸까? 최근 대규모 시위를 주최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편한 용기'로 명명하였다.<sup>1)</sup>

이 새로운 페미니즘의 물결을 주도하는 주체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이슈로 어떻게 한국사회의 젠더관계 변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들의 실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성세대는 어떠한 성찰을 요구받고 있는가?

## 2. 새로운 주체들, 그들은 누구인가?

지금 새로운 페미니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

1) '불편한 용기'는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편파수사를 규탄하기 위한 거리 시위를 조직하고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이름이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태어나면서 일상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체화한 세대”<sup>2)</sup>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세대의 일상문화는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 안에서 친구를 사귀다.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페이스북 ‘좋아요’ 숫자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촬영은 그들 생활의 일부여서 자신이 먹은 것과 다녀간 곳을 비롯한 일상을 사진으로 인증하고 공유한다. 옛 연인과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도 유포되어서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는 기성세대는 솔직히 ‘도대체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은 왜 찍는 거야?’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모든 순간을 디지털로 인증하고 공유하는 세대에게는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가장 친밀한 순간을 인증하는 것 또한 욕구이자 사는 방식일 뿐이다. 이들에게 온라인 공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숨 쉬고 친구를 사귀면서 사회와 관계 맺는 공간이고, 오프라인에서의 생활이 매개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온·오프라인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 디지털 시대의 ‘여성’ 경험

페미니즘 운동이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 여성학자들은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부당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sup>3)</sup>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를 사는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들은 주요 소통 공간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여성’을 경험하게 된다. 온라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혐오는 널리 퍼져 있었다. 여성의 몸이나 외모에 대한 품평은 물론이고, 여성들은 ‘XX녀’ 형태로 비하되어 표현되고, 별레를 의미하는 ‘XX충’ 형태로 불리고 있었다. 이런 여성혐오는 일베가 주도하지만, 일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남성유저가 다수 있는 모든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여성혐오

콘텐츠는 공유되고 확대, 재생산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 유저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닉네임으로 안전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의 발언이 남성의 비위를 건드리는 발언, 그들이 주장하는 ‘꼴페미 발언’ 이기라도 하면, 여성들은 ‘신상이 털리고’ 못매를 맞았다. 여성 유저는 이런 불안을 일상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온전하게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다닌다. 이것이 왜 몇몇 여성 커뮤니티에서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또한, 여성들은 디지털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요즘의 젊은 여성들은 필수품으로 실리콘과 반창고를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화장실 등에 난 작은 구멍들을 통해 불법촬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멍들을 막기 위함이다. 불법촬영물이든 그들이 동의한 촬영물이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로 변색되어 떠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공포는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 유포협박에 대한 빈번한 뉴스는 자신이 가장 친밀하게 느꼈던 애인이나 남편에 의해 포르노로 복수당할 수 있다는(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여성들의 공포를 더욱 강화시킨다.

폭력과 공포는 디지털 문명을 향유하는 그들의 일상에 내재되어 있고, 새로운 페미니즘의 부상도 그들이 겪는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폭력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세대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은 뭔지 모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한 불편함과 그 불편함을 표현할 적당한 언어를 찾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한 젊은 페미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와 다른 여자 동료들의 외모에 순위를 매겨가면서 주위 여성들을 평가하는 남자 선배와 동기 그리고 후배들, 내 앞에서 본인의 성매매 경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안줏거리 삼는 남자들, 고통받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인터넷 댓글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 숨이 찰 정도였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표현할 언어가 마땅치 않았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침묵하는 한국사회에서, 감히 부당하다고 말할 용기도 내지 못했다”<sup>4)</sup>

2) 이진(2013), 장민지(2016)에서 재인용. 이진(2013)은 디지털 세대를 1980년대 컴퓨터의 대중화와 1990년대 모바일과 인터넷 확산에 따른 디지털 혁명의 시기를 겪은 사회학적 기준의 세대를 포괄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10대, 20대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함. 장민지,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주체(Digital Native Female Subject)의 운동 전략』 『미디어, 젠더 & 문화』 Vol 30(3), 2013, pp.219~255.

3) 홍미희, 『한국의 여성운동과 젠더관계의 변화』, 독일보훔대학 박사논문, 2006.

4) 김익명 외, 『근본없는 페미니즘-메갈리아에서 워마드까지』, IF북스, 2018.

새로운 페미니즘 물결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부당함을 인식하고, 그 부당함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에 이르렀을 때 생겨나게 된다.<sup>5)</sup>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메갈리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메르스와 페미니즘, ‘메갈리아’의 탄생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대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뜻밖에도 페미니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중동 호흡기 증상을 의미하는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였다. 그리고 그 장소는 유저들이 자유롭게 연예인 갤러리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게시판을 만들어 정보를 주고받는 디시인사이드(DCinside)였다.

메르스 갤러리가 생겨난 배경은 이렇다.

때는 2015년 5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메르스가 발병하였고,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홍콩 여행을 다녀온 여성이라는 추측성 기사가 보도되자, 이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sup>6)</sup>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메르스 첫 확진자는 중동을 여행한 68세의 남성이었고, 이후의 전염자 또한 이 남성의 부인, 딸,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였다.<sup>7)</sup> 여성 유저들은 ‘메르스 갤러리’ 게시판을 만들고, 기존의 여성혐오 발언을 그대로 패러디한 남성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남자와 벌레를 결합해서 ‘한남충’이라 칭하고, 남성 성기 크기를 조롱했으며, ‘결혼못하는남자(결못남)’ 갤러리를 만들어 ‘결혼하고 싶으면 동정을 지키고 정숙하게 지내라’고 충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갈리아의 딸들』<sup>8)</sup>이라는 소설과 메르스의 결합어인 ‘메갈리아’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이 이름으로 사이트가 운영되게 되었다.

메갈리아에서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모든 경험을 공유하고 ‘남성혐오’라는

5) 홍미희, 위의 논문.

6) 김익명 외, 위의 책.

7) 김익명 외, 위의 책.

8) 『이갈리아의 딸들』은 1970년대 노르웨이에서 쓰인 소설이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나 지위가 완전히 뒤바뀐 가상세계를 매우 설득력 있게 묘사하여, 현재의 남성지배 사회를 풍자한 소설로 페미니즘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다.

무기를 가지고 여성혐오에 대항했다. 메갈리아는 20대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느껴왔던 불편함을 여성인권과 페미니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세대들을 메갈세대라 불러도 좋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 전략으로서의 미러링 - 성과, 그리고 반격

메갈리아에서 택한 담론 전략은 미러링이다. 미러링 전략은 “여성혐오적인 말이나, 글, 사상, 행태, 행동을 등장인물이나 화자의 성별만 반대로 바꾸어 보여줌으로써 여성혐오를 선명하기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된다.

오랫동안 남성 유저들이 다수인 사이트에서 여성을 ‘김치녀’, ‘된장녀’ 등으로 부르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까지 ‘맘충’이라 부르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다. 1020 여성들의 전략은 남성들의 여성혐오에 똑같은 정도의 혐오로 맞서는 것이다. 그들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 하지 않으며, 욕이든 성기든 ‘이기기 위해’ 독하게 사용한다. 키보드로 치르고 있는 전투에서 독한 말, 혐오 발언의 강도가 높을수록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대응하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기성세대가 “왜 그렇게 과격한 언어를 쓰는지” 염려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주체의 답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가들의 두뇌 자체가 다른 알고리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다. 오프라인 근거를 두고 있는 활동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도 생각을 많이 해야 했다. 나에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들에게겐 전혀 아니었다. ‘왜 그렇게 과격한 언어를 쓰나요?’라는 질문은 늘 있었다. 1980~90년대 언어와 21세기에 온라인의 언어는 다르다. 우리는 21세기 온라인 남성들과 싸우며 그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성들을 보지 않은 채 우리 언어만 보며 혐오 세력이라 비난한다.”<sup>9)</sup>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느낀 감정은 한마디로 ‘해방감’, ‘통쾌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미러링을 보고 속이 시원했다. 해방감도 느꼈다”, “여혐

9) 김익명 외, 위의 책, p.54.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땐 듣지 않던 남성들이 '성기 크기' 미러링으로 되갚아 주니 그제서야 혐오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우스웠다.”<sup>10)</sup>라고 답한다.

통쾌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러링 전략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여성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단순히 남성들이 몰려와서 악플을 달고, 신상을 터는 수준을 넘어 남성혐오 유튜브 방송을 하던 BJ는 실시간 살해 협박을 받았다.<sup>11)</sup> '꽃뱀'을 패러디해서 '쫓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여성 유저는 고소를 당해 법정에 가야 했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지난한 법정 투쟁 끝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미러링 글로 고소를 당해서 고통받은 여성들이 100명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sup>

페미니즘 운동을 보는 관점에서 메갈리아와 미러링 전략에 대해 특히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메갈리아에서의 담론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막연하게' 느꼈던 불편한 감정을 '여성으로서', '부당하게' 당하는 '차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집단적 정체성이야말로 페미니즘 운동의 핵심적 요소이다.

두 번째로 여성들이 '남성'을 규정하는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남성들은 항상 여성을 보고, 평가하고 규정하는 주체이고 여성들은 대상이었다. 이런 권력이 남성들에게 내재되어 늘 여성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맨스플레인'(man과 explain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제 여성들은 '감히' 남성들을 대상화시켜 평가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에 비판은 해왔지만, 주체가 되어 남성을 대상화시키지는 않았다. 여성이 주체가 되고 남성이 대상이 되는 이 전복적 경험은 여성-남성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단계일 것이다.

## 강남역 여성살인사건과 행동네트워크

메갈리아가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강남역 여성 살

인 사건은 많은 여성들을 직접 행동에 나서게 했다.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젊은 여성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남성에게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서 죽었다”라는 살인자의 최초 진술이 알려지면서,<sup>13)</sup> 여성들은 추모를 통한 행동에 나섰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추모 메시지는 여성이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다시 '나'라는 개인을 집단적 주체인 '여성'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수많은 직접 행동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sup>14)</sup>

## 3. 새로운 운동의 이슈

: 디지털 성폭력과 탈코르셋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이 제기하는 핵심 이슈는 디지털 성폭력과 탈코르셋이다.

###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및 편파수사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촬영 및 비동의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기술이 매개된 폭력을 의미한다. 메갈리아 활동시, 이들은 이미 '소라넷 폐지' 운동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 공유 사이트로 1990년대 말부터 운영되어 100만 명의 이용자를 두고 있었다. 소라넷에서는 화장실, 길거리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나, 성관계 영상들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을 술로 정신을 잃게 하고 실시간으로 강간을 모의하면서 같이 동참할 남자를 '초대'하는 끔찍한 성범죄가 모의되기도 했다.<sup>15)</sup>

13)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혐오범죄가 아니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인식론적 투쟁 대상이 되었다(강준만, 2018).

14)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 한국여성디바협회,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강남역10번출구, 페미디아, DSO 등이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고, 이들은 2016년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제3차 여성회의에서 시니어 페미니스트들과 만났다(한국여성재단, 2018 여성대회 자료집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15) 일명 골뱅이 사건. '골뱅이'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이다. 어떤 남성이 술취한 여성의 동영상

10) 강준만, 『소통하는 페미니즘 - 한국 페미니즘 논쟁사, 2008-2018(2)』 『인물과 사상』 243호, 2018, pp.46~85.

11) 일명 갓건배 사건. 갓건배라는 아이디를 가진 여성을 살해하려 가자고 남성들이 실시간 모의를 한 사건이다.

12) 김익명 외, 위의 책.

소라넷 실체가 알려진 뒤, 메갈리아에서는 소라넷 모니터링 전담팀이 신설되어, 지속적으로 소라넷을 모니터링하다가, 실시간 강간모의(초대남 모집)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작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사건의 조사를 거부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메갈리아 유저들은 소라넷 페이지에 나섰다. 해외 서버 운영자에게 이런 실상을 알리고,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려서 여론을 환기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폐쇄 청원을 하고, 소라넷 폐쇄를 촉구한 진선미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년간 존재해왔던 소라넷이 2016년 4월에 드디어 폐쇄되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은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남성 누드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유포한 사건인데, 경찰은 6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고, 신속하게 재판에 붙여져서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런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여성들의 분노를 일으켜 거리로 나서게 했다. 그간 여성들은 불법촬영 피해를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은 사실과 남성 범인이 붙잡혔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경험을 무수히 한 터였다. 남성이 피해자로 나타나자,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성들은 분노했다.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청원은 단 이틀 만에 20만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5차에 걸친 규탄 시위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 탈코르셋 - 내가 통제하는 나의 육체

새로운 물결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탈코르셋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는 정신을 담고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릇이 아니다. 신체 곳곳은 성적 의미로 변질되었고, 여성들은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에 맞게 꾸미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꾸밈노동'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이다.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에 맞게 자신을 꾸미는 행위는 결국 여성들 스스로가 억압된 사회구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의 상징이 '코르셋'이다. 처진 뱃살을 눌러주고, 허리는 가늘게 압박하고, 가슴은 크고 쳐지지 않게 받쳐준다. 나의 몸 전체를 눌러서 편히 숨 쉬지 못하게 하는 대신 외부로 나를 맵시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코르셋, 이

내보내면서 함께 강간할 사람을 초대한다는 개인 방송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는 것을 메갈리아 내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 팀이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다.

는 억압의 상징이다.

젊은 여성들은 좀 더 급진적으로 코르셋을 벗어던지고자 한다. 그들은 '천하제일 겨털대회'를 주최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겨드랑이 대신에 자연스러운 형태의 겨털 자랑대회를 열고, 즐긴다. 브라지어의 불편함을 고발하고 브라지어를 벗어던진 몸의 편안함을 향유하고자 한다. 여성들에게 부과하는 부당한 '여성다운' 몸의 기준을 버리고 스스로 통제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 4. 새로운 자원동원 방식

### : 클라우드 펀딩과 굿즈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돈과 사람을 모으는 일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여성 단체들이 회원을 모으고, 회비를 모아 활동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새로운 운동 주체들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돈을 모으고, 여성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굿즈'를 제작, 판매한다. 이런 운동 방식이야말로 기존의 운동과 차별화되는 새로움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메갈리아에서 페이스북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 티셔츠를 제작하여 모금한 사례이다. 메갈리아는 'Girls do not need a prince (소녀들은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쓰인 티셔츠를 제작해서 클라우드 펀딩에 나섰다, 이를 통해 1억이 넘는 돈을 모았다. 이런 굿즈는 페미니즘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남성들의 심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예는 '넥슨'의 성우 사례에서 볼 수 있다. 2016년 7월에 게임회사 넥슨이 여성 성우가 이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 일어났다. 넥슨은 남성 유저들의 향의를 수용한 것이었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이민경 지음, 봄알람)이라는 책은 일종의 페미니즘 논쟁 매뉴얼인데,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몇 백만 원을 목표로 클라우드 펀딩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몇 천만 원이 모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새로운 여성 주체들은 사람과 자금을 순발력 있고 규모 있게 조직할 수 있는 힘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기존의 여성운동이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다.



## 5. 나가며

- 새로운 물결, 생산적 변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현재 새로운 페미니즘 물결을 주도하는 주체가 형성된 사회적 맥락과 주체의 성격, 주요 운동 전략과 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문명의 맥락에서 형성된 새로운 주체들은 이제 대규모로 거리로 나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안, 공포와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 수만 명의 여성들이 시위에 모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으로서 느끼는 부당함이 그저 ‘한줌 꼴페미’의 피해망상증이 아니라 이 사회에 부당함이 편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동원력으로 입증하고 있다. 청년 여성들은 “당신은 페미니스트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럼 당신은 아직도 페미니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페미니즘 발언을 하면서조차도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식의 사족을 달던 때와 비교할 때 놀라운 변화다.

물론 새로운 주체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일 주체가 아니다. 새로운 페미니즘 물결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메갈리아는 공격적 언어의 수위와 공격 대상 범위,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등을 놓고 내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여러 주체들로 분화되어 갔다. 위마드는 ‘여성 유목민(woman+nomad)’의 의미로 여성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남성 유저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폐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다 정착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sup>16)</sup> 이들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남성 지배적인 한국사회와 남성성을 공격하고 있다. 새로운 주체들에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여성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

가도 있고, 알바노조나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 청년 노동문제를 제기하는 활동가도 있으며, 정당 활동을 하거나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대응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남성 중심의 게임 문화를 개선 하려는 사람도 있다.

새로운 주체들은 이런 차이들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연대하면서 그들의 운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세대를 보는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시위에 등장한 가장 급진적인 발언과 구호를 뽑아서 젊은 여성들의 운동이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재단하려 한다. 혹은 그들의 의도는 좋으나 방법은 옳지 않다는 등의 점잖은 어조로 혼수 두려고 한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이 할 일은 그들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이들이 던지는 문제에 대해 자기성찰을 하는 일 일 것이다.

인문학자 천정환(2016)이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새로운 페미니즘은 ‘한국 남성성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sup>17)</sup> 여성을 공격하고 맘에 들지 않는 주장이나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낙인찍으면서 성대결을 벌이고 있는 남성성의 모습을 계속 지니고 살아갈 것인가, 성찰을 통해 변화된 남성성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남성들은 성찰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여성운동에 몸담아 왔던 여성들에게 이들이 던지는 성찰적 과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연대 전략과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평등한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던 기존의 여성운동은 민주주의, 환경, 평화 등을 중요한 가치로 지향하면서, 같은 가치를 지닌 사회운동과 연대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남성을 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면서 남성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문화를 수용하고 거기에 적응한 것은 아닌지,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틀은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움직인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16) 김익명 외, 위의 책.

17) 천정환, 『역사비평』 2016, pp.353~381.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의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성주류화 전략도 마찬가지로이다. 모든 제도와 정책 형성과정에 젠더를 통합하려고 하는 성주류화 전략이 실은 기존에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에 여성 몇 명을 더 들여보내려는 것은 아닌 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일이다. 여성에게 불리한 정치문화를 그대로 두고, 여성의 정치참여만 외치는 식으로 말이다.

지금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들 스스로뿐 아니라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 또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지금의 물결이 생산적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다.

#### 글을 쓴 **홍미희**는

독일 보훔대학에서 『한국의 여성운동과 젠더관계의 변화』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인천여성정책센터, 인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등에서 일하며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을 해왔다.

# 딸들의 반란, 당황하는 아버지, 멘붕인 나

## :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 1. 들어가며

- 딸들의 반란

지나치게 덤덤 지난여름, 한 지인이 웃지 못 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집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아버지에게 제발 걸옷을 걸치라고 말하던 지인의 딸이, 지겹게 말해도 꾀꾀하게 팬티 룩을 구사하는 아버지를 보다 못해 “그럼 나도 벗지 뭐” 하면서 그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는 것. 그 딸의 엄마인 지인도 팬티 차림이던 지인의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장면이 연출된 후, 그날부터 남편은 집에서 걸옷을 챙겨 입는다고 했다.

이 장면은 ‘벗어도 되는 몸’과 ‘벗으면 안 되는 몸’ 사이의 결투였고, 벗으면 안 되는 몸이 제 살을 드러냄으로써 한판승을 거둔 승부였다. 딸이 아버지와 똑같이 팬티 룩을 선보인 것을 두고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것

아니냐” 라거나 “어디 여자가 바지를 벗느냐”는 질타가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 날의 아버지는 딸을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그러기보다는 집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남자인 자기 자신뿐임을 깨달았고, 이후에 그 ‘특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을 알려준 딸이 그 에겐 스승인 셈이다.

이야기를 들려준 지인도 딸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했지만, 부모 모두 깜짝 놀랐다는 것 빼고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 ‘모두가 편안한’ 실내 복장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딸이 선택한 싸움의 전략은 통한 셈이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게 된다. “아버지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다니지 마셨으면 해요”라는 친절한 화법은 왜 이런 결과값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일까.

문제가 오랫동안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딸들은 그들의 화법에서 친절함을 뺐다. 그것은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친절히 부탁해서 그들의 호의를 기다려 얻어내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은 호의가 아니라 정의(正義)였고, 필요한 건 친절함이 아니라 단호함이었다.

친절함이 사라진 자리는 센스 있는 작명들로 채워졌다. 가부장적 결혼은 ‘독박육아·독박가사·대리효도’<sup>1)</sup> 3중 세트(3D, 쓰리디)로 설명했고, 이런 결혼 안한다며 ‘비혼·비출산’을 선언했다. ‘허수애비’를 지나 ‘투명애비’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을 ‘맘충’으로 비하하고, 낙태하는 여성을 ‘낙태충’이라 부르며 비난과 모욕을 쏟아내는 사회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대신, 임신·출산·양육에서 사라진 아빠들을 불러냈다. 성관계에만 동참할 뿐, 피임·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 사라지는 ‘애비’들을 소환한다.

알다시피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고, 남성의 영역은 사회(직장)라는 고리타분한 말은 오랫동안 시정을 요구받아 왔다. 남자 혼자 벌어서는 가구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도 흔해

졌다. 하지만 여성에게(만) 가정 내 성역할을 강요하는 문화는 바뀌지 않았고, 노동시장은 불안정했으며 심지어 성차별적이었다. 한 때 ‘알파(α)걸’이라 불리던 여성들은 이 세상을 이끌 새로운 주체들로 환호 받고 기대받았지만 결국 10년 전의 알파걸들은 남성 임금의 64%를 받고 비정규직에 종사하면서 독박육아·독박가사·대리효도를 전담하는 ‘슈퍼맘’이 되어있었다.

## 2. 성평등 판타지

: ‘알파걸’이 만들어낸 여성상이라는 허상

십여 년 전인 2000년대 후반 ‘알파걸’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댄 킨들러(Dan Kindler)는, 페미니즘의 수혜를 받은 부모 세대로부터 남성과 여성의 출발선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미국의 여성들이 주눅 들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을 ‘알파걸’이라고 이름 붙였다. 2007년 출간한 그의 책 『알파걸 - 새로운 여자의 탄생』은 한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렸고 대중매체에는 알파걸이라는 단어가 일상어처럼 사용됐다. 흥미로운 점은 알파걸이라는 단어에 들러붙은 ‘베타보이’의 등장이다. 2008년 출간한 『알파걸에게 주눅 든 내 아들을 지켜라』라는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들에게 뒤지지 않는 소녀는 남아들을 주눅 들게 하고 자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여자들’이 되어갔다.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 있고 인간관계에 탁월한 여성을 의미했던 알파걸은 곧바로 ‘남자들 기죽이는 잘난 여자’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은 남자와 여자는 출발선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까? 그렇지 않다. 2007년 당시 한국의 소녀들은 페미니즘의 수혜를 입은 부모들의 손에서 성평등하게 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알파걸이라기보다 “백말띠 해에 태어난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라는 말을 믿고 여아들을 대거 낙태하던 시절에 태어난 생존자에 가깝다. 1990년 백말띠 해의 성비는 116.5명이었고 셋째 아이의 성비는 193.3명에 달했다. 남아 100명당 여아 12명이 뱃속에서 제거됐다는

1) 독박육아·독박가사·대리효도란,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의 책임을 떠맡기고, 본인이 할 효도를 아내에게 대신 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육아, 가사, 효도는 남성에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설거지를, 양육을, 명절노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구조가 완성된다.

뜻이고 셋째였다면 남아 100명당 여아 94명이 살해됐다는 뜻이다. 그 와중에 한국사회는 2000년대 들어 저출산이 문제라며 난리였고, 겨우 살아남아 아들 중심의 사회를 버텨내고 있는 소녀들에게는 “세상을 지배할 알파걸”이라며 추켜세웠다. 그 단어 하나의 등장만으로 성평등은 이미 도달했으며 알파걸의 기에 놀릴 아들이 걱정이라며 설레발을 쳤다. 여성 상위시대라는 단어가 적극 소비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고시 합격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성평등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근거처럼 사용됐다. 행정고시 여성 합격율은 2000년 25.1%에 불과했지만 2007년엔 49%에 달했고, 사법고시 여성 합격자는 처음으로 35%를 넘었다(38.1%). 2007년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67.7%였다. 교원 임용고시에는 여성 합격률이 90%를 넘으면서 남교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졌다거나 여성이 더 앞서고 있다는 근거일 수 없었다. 당시 성별 임금격차는 40%를 넘고 있었고 여성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던 때였으며, 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을 환영하지 않는 노동시장은 여성의 고용을 꺼렸다. 이러한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첫째, 성별을 따지지 않고 오직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며, 둘째,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데다, 셋째,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는 국가고시에 고학력 여성들이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에게 돌봄노동을 위탁한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여자들이 하면 좋은 직업으로 꼽히는 초등학교 교사가 남성들에겐 비선호 직업인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여성들은 전문직에 진출했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노동시장의 보이지 않는 성차별(유리천장)으로 인해 결국 남성과 똑같아지지 못했다. 초등학교에는 여교사들이 넘쳐났지만 교장과 교감의 비율은 남성이 압도했다.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여교사의 비율은 급격히 줄었고 대학교의 여성 교수 비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알파걸’ 담론은 여성들이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여자들이 남자들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허구의 두려움을 증폭시켰고, 그것이 만들어낸 여성 상위시대라는 허상을 근거로 남성 중심 체제를 강화시켜 왔다. 덕분에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로 여기는 노동시장은 안전하

게 낙후된 규칙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2018년 3월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을 뽑는 서류 심사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준 사실이 발각됐고 그것을 시작으로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줄줄이 성차별 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점수 조작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sup>2)</sup> “평등하다, 심지어 여성 상위시대”라는 말을 성장기 내내 들어온 여성들은 성인이 되면서 뒤늦게 알게 된 거다. 그것이 순전히 뺨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더는 속을 일이 없다. 싸울 일은 있어도 말이다.

지금의 1020세대 여성들은 “참하고 순하다”는 말에 대해 “그게 칭찬이냐”며 받아친다. 이들에게 참하고 순하다는 건 군소리 없이 3D를 수행하면서 남성-가부장의 부속품으로 살아내라는 말과 같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은 그녀들이 이상해져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심각한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정은커녕 여성을 소모품 취급하는 관행이 정도를 한참 넘어섰기 때문에 벌어진 것들이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남자들 기죽이는 여자들의 탄생’으로 수신된 것은 이후에 일어날 중대한 문제들을 예고했다. 독해 오류는 이후에도 ‘여자도 사람’이라는 주장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고, 남성들이 ‘여성’을 죄책감 없이 소비하는 데 기여했다.

### 3. 디지털 시대의 참담한 결과값들

: 남자들의 죄책감은 소멸했는가

과거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발등에 거울을 놓고 여자 선생님들의 치마 속을 훑쳐보며 킬킬했다는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미담(美談,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흘러 다녔다. 발등에 올려뒀던 거울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뿐, 여성의

2) 「KB국민은행, 채용과정 성차별 첫 처벌...인사팀장 구속」 <SBS뉴스>, 2018년 3월 1일.  
「[2018국감] 공공기관 여성 지원자들, 필기 합격 후 면접서 탈락...“채용성차별 의심”」 <여성신문>, 2018년 10월 10일.

몸을 훑쳐보는 재미는 남자들이 해오던 오래된 놀이였다. 소위 ‘빨간책’이라 불리던 그 책은 여자들의 벗은 몸들이 전시된 책이었고, 이제 그것은 종이에 인쇄된 책자가 아니라 디지털 코드로 변모해 모니터와 모니터들 사이를 오간다. 모 여자 연예인의 성관계 영상이 비디오로 돌아다니던 때는 어떠한가. 비동의 성관계 영상 유포는 최근 들어 새로 생겨난 신종 범죄가 아니었다. 당시에도 남성들은 XX양 비디오를 구하느라 혈안이 되었었고 피해 여성의 고통과 접촉하기보다 그 여성의 알몸을 몰래 훑쳐볼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영상을 굳이 찾아보지 않는 이들조차도 여배우를 안타까워할 뿐, 그 문제를 범죄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운 나쁘게 그런 영상에 찍힌 ‘몸을 함부로 한’ 여배우의 문제이지 영상을 팔아 돈을 챙긴 가해자나, 그 비디오를 복사하고 복사해가며 돌려보는 남자들의 문화에 판지 걸지 않았던 거다. “남자들은 다 그래”라는 동의할 수 없는 말로 여성의 몸을 쉽게 침해의 대상이 됐고, 그 말에 대꾸라도 하듯 “언제라도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여자들은 조심해라”라는 말이 따라왔다.

그리고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는 잘못된 명제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온 이 말이, 성범죄에 있어서 남성들의 죄책감을 오간데 없이 삭제시켜 온 주범이라 하겠다. 얼마 전 걸 그룹 ‘카라(KARA)’의 멤버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둘의 성관계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하여 위협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 즉시 ‘구하라 동영상’은 남성들이 이용하는 음란사이트 검색어 1순위에 올랐다.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을 보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가 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지만 “남자라면 당연히 찾아보고 싶지 않겠는가”, “혼자 깨끗한 척 한다”라는 응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sup>3)</sup> 여성의 고통과 접촉하지 못하고 ‘남자다움’을 앞세우는 이 장면은, 전쟁에서 여성을 강간 안 했다고 하면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던 일본군 노병의 망언과 겹쳐진다.<sup>4)</sup> (전쟁 중) 젊은 여자 강간 안 하면 남자 아니지라는 말과, 남자라면 유출된 성관계 영상을 구해서 보고 싶지 않겠느냐는 말은 대체 “남자란 무엇인가”를 묻게 만든다. 그들 말대로라면 남

자라면 강간쯤은 해야 하는 것인가, 남자라면 피해 여성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비동의 유포 영상물을 봐야만 하는 것인가?

2015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회원 수 140만에 달하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 ‘소라넷’이 세상에 알려졌다. “여자들은 몰라도 된다”던 남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지 못했던 여성들은, 바로 그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흥측한 ‘낙후된’ 남자들의 세계와 대면했다. 셀 수도 없는 불법촬영물과 그것을 시청하며 자위행위의 도구로 사용하는 남자들, 강간 약물을 사고팔며 약의 효과를 강간 촬영물로 인증하는 남자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짝은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며 그것을 헤어진 여친에 대한 응징이라고 말하는 남자와 그 영상을 ‘복수-포르노(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며 열렬히 시청하는 남자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 사이트가 1999년에 생겼다는 것도, 그와 비슷한 불법 포르노 사이트가 200여 개라는 사실도 믿을 수 없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본인을 소라넷 ‘작가’라고 소개한 30대 남성은 “소라넷에서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지경이다. 안 걸리니까...활동을 오래 하면 죄책감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은 성차별적인 사회를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여성을 인간으로 감지하는 능력의 상실과 그로 인한 부끄러움의 상실, 그리고 죄책감의 상실이다. 괴롭히고 싶은 여성의 사진을 올리며 ‘알몸 합성’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핸드폰 연락처를 받는 기괴한 거래, 지인(여성)에 대한 ‘능욕’을 부탁하는 이들과 기꺼이 능욕에 응하여 그 여성을 재미로 괴롭히는 남성들 간의 ‘놀이’는 이러한 ‘무감각’ 속에서 반복 재생산되었다. 여성의 존엄을 훼손한다는 감각조차 없이 훼손하는 일은 여성을 상품화하는 시장을 극대화했다. 줄어들지 않는 수요층은 시장화됐고 성의 상품화를 지나 ‘성폭력의 상품화’로 이동했다. 불법촬영물 유통망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웹하드와 파일공유 사이트(P2P), 개인 간 SNS를 넘나들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의 국내 대형 웹하드 업체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동의 유포 영상물들을 거르지 않고 유통시켰으며, 무수한 수요자들 덕분에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스마트폰과 한 몸이라 해도 될 만큼 스마트폰에 익숙한 1020 여성들에게 만연

3) 「구하라 동영상 떴어? 리벤지 포르노 2차 가해 우려」 <한국일보>, 2018년 10월 5일,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51540729090>.

4) 「젊은 여자 강간 안하면 남자 아니지」, 반행 저지르고도 반성 없는 일본군 출신 노인」 <인사이트>, 2018년 10월 5일 <https://m.insight.co.kr/news/182318>.

한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언제 어디서 카메라에 찍힐지, 누가 자신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 커뮤니티에 올려 능욕을 요청할지 알 길이 없다. 그것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번 올라간 촬영물은 삭제할 수 없었다. 피해 여성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남자들의 세계에 전해질 때조차도 그들은 그 불법 촬영물을 ‘유작(遺作)’이라며 소비했다.



출처: cafe.daum.net/Hongdaenam/ 불편한 용기 공식 카페

남성중심적인 노동시장은 여성을 가정으로 보냈고,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여성을 골로 보냈으며(독박육아·독박가사·대리효도), 성평등할 것이라 기대받던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강간의 대상-‘구멍’-으로 만들었다. 1020 여성들이 피해 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있으며,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싸우는 길밖에는 없는 거다.

#### 4. 성평등은커녕 생각보다 더 낙후된 곳에서

: 싸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남자들이 원래 다 그렇지’ 라는 말은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해왔

고, 그 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맞이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만난 것은 ‘남성 누구냐’가 ‘여성 누구냐’를 찍고, 보고, 공유하고, 사고, 파는 세계였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범죄가 근거리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020 여성들이 참다못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바로 이 장면에서다. 적어도 국가는 여성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무너져 내렸다.

국가도,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일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2017년 8월 <PD수첩>은 지인 능욕 피해자 10명이 직접 가해자를 붙잡은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서 ‘컬레’라는 표현을 달고, 1,500만 명 회원을 보유한 ‘중고나라’ 페이스북 계정에 “40만 원에 거래 가능하다”라며 합성 사진을 올리고, 피해 여성의 이름을 딴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 여성의 이름을 사칭한 SNS 계정을 만들어 남자친구들만 골라 합성 사진을 ‘선물’로 보내는 등의 범죄를 이어가고 있었다. 피해 여성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해외 SNS 계정이라 잡을 수 없다”라며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자 여성들이 가해자를 추적했고, 범인을 잡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5주였다. 경찰이 잡을 수 있는데도 잡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은 여성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를 의뢰할 경우, 첫째, 해외 서버라 조사가 어렵다거나, 둘째, 영상 속 얼굴이 본인이 맞는지 특정할 수 없다거나, 셋째, 가해자가 당신을 역고소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면 “가해자 주저지 경찰서로 가라”거나 “몰카 찍힌 모텔 관할 경찰서로 가라”, 혹은 “증거물이 흑백이니 칼라로 뽑아오라”, “양면은 안되니 단면으로 다시 출력해 오라”라는 등의 납득 안되는 말들로 피해 여성을 돌려보내는 일도 벌어졌다(<한겨레21>, 2018년 5월 28일). 그러던 중 지난 5월 홍대 미대 nude 수업에서 남자 모델의 nude 사진이 여성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촬영자를 검거했으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 사진을 올렸던 -해외에 서버를 둔- 여성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

고, 사이트 운영자를 수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철저한 사건 진행 절차를 보면서, “그동안 경찰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과소평가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그 사이 영상을 유포할까 두려워 피해 여성이 그토록 원했던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은 피해자가 ‘남성’이 되었을 때에야 일어났다. 수많은 여성 불법 촬영물과 여성 아동 포르노, 여성 성폭력 동영상들이 올라오는 남자들의 불법 포르노 사이트를 보면서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수사하지 못한다고 말해왔던 경찰은, 찍히고 유통되는 몸이 남성이 되는 순간에(만) 피해에 공감했다.



출처: cafe.daum.net/Hongdaenam/ 불편한 용기 공식 카페

## 5. 우리가 해야 할 연습

: 공동의 책임감 속에서

앞서 딸이 아버지와 똑같이 팬티 룩을 선보인 것을 두고 딸이 과격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 그것은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은 100여 년 전 여성참정권을 외치며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영국 여성들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사회가 물었을 때 그녀들이 답했던 말이기도 하다.

1020 여성들은 2000년대 알파걸 판타지에서 빠져나왔다. 성평등한 세상에서 제 능력을 거리낌 없이 펼치며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한다는 시나리오는 엄마, 아빠가 지어낸 산타 할아버지 같은 것이란 걸 안다. 그런데 문제는 산타 할아버지 판타지를 심어준 부모 세대가 거꾸로 그게 판타지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데에 있다. 산타는 없는데 있다고 계속 믿는다.

먼저 깨어난 1020 여성들이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싸운 덕에 경찰은 지난 9월 ‘웹하드 카르텔’ 수사를 시작했고(<아시아경제>, 2018년 9월 6일). 정부는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몰래카메라) 유포를 막기 위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고 발표했다(<서울신문>, 2018년 10월 18일). 소라넷 폐쇄 운동을 시작하지 꼬박 3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그 와중에 죄책감 없는 한국 남성들은 성인 ‘남성의 볼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장면을 보는 여성들은 또 한 번 절망한 후, 또 한 번 싸움 준비를 한다.

여성들의 싸움은 비단 불법 촬영 영상물을 막는 싸움에 그치지 않는다. 이 싸움은 미투 광장에서 최영미 시인이 말했듯이 과거와 미래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온 케케묵은 전통과의 싸움이고 도래할 ‘평등을 현재’로 만드는 싸움이다. 이때 ‘소유’는 다양한 말로 변용되어 현실세계에 산포되어 있다. 남성이 여성을 ‘보호’한다, ‘관리’한다, ‘지켜준다’, ‘먹는다’는 등의 표현이 있겠다. 보호하는 동시에 잡아먹고, 보호받는 동시에 잡아먹히는 이 관계를, 이제 곧, 먼저 깨어난 여성들이 끊어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상호 의존의 관계에 있는 서로의 조력자들이지, 먹고 먹히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여성들은 “시민다운 남성 시민을 길러내길 실패한 정부와 사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외친다(불편한 용기 4차 시위 성명서 내용 중).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부르짖고(불꽃페미액션 찌찌해방시위), “내가 그 생명이다”(임신중단합법화시위)라고 말한다. 여성은/여성도 ‘온전한 인간(human being)’이며 누구도 이 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이러한 1020 여성들의 말하기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끝날 일은 없다. 말하기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차별을 시정하는 것뿐이다. 그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 목소리를 기각하고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규율을 들이대며 앞으로도 쭈욱 사

냥터의 사냥감으로 살라고 말한다면 이들은 더 과격해질 것이다.

긴 생머리에 부드러운 목소리, 적당한 애교와 말랐지만 볼륨 있는 몸을 가진 ‘여성’에 대한 판타지는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그래야만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성이 그 자체로 ‘존재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로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습관도 과거로 보내야 한다. ‘남자들은 다 그래’라는 말로 그들의 범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익숙함과 결별하지 못해서 이런 망해버린 세계가 탄생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앞서 본 망해버린 세계를 만든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인간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방법은 있다. 심지어 간단하다. 두 단계만 거치면 된다. 첫째, 생각하고 둘째, 움직이면 된다. 나 자신이 여성을 도구나 부속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고, 그러지 않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23년째 연습 중이다. 연습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지난주에도 나에게서 큰 시련이 왔었다.

딸과 함께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좌석이 하나 비어 딸이 그 자리에 앉았다. 딸은 두 다리를 매우 편안히(?) 하며 앉았다. 별말 없이 가고 있는 와중에 근처에 있는 남자 중학교 학생 다섯 명이 교복을 입고 탑승했다. 딸의 자세는 세상 편안했고, 남학생은 버스에 올랐으며, 엄마인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나 생각하느라 진땀을 뺐다. 딸에게 두 다리를 오므리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은 “넌 네 다리가 음란물인 거 몰랐나”라고 다그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너의 몸을 이 세상은 ‘음란물’로 합의했고, 때문에 너는 언제 어디서나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으니, 그러니 음란물인 네가 조심하는 수밖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무얼 해야 할까.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인간’으로 초대하고, 공동의 책임감 속에서 상호 조력의 세계로 이동하기 위해, 지금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 6. 나가며

나의 선택은 딸을 성적 대상으로 합의한 세상에서 구출해 ‘인간’의 자리에 두고, 여성의 다리를 쉽게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남학생들의 시선을 내 눈에 잡아두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딸은 즐겁게 음악을 듣게 두면서, 버스에 오른 남학생 다섯 명과 번갈아가며 눈을 마주쳤다. 30분을 그렇게 으느라 두 눈이 빠질 것만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선택은 후회 없다. 남학생들도 내 딸도 인간과 인간으로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201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작한 노르웨이는 남녀가 나무반을 함께 사용한다. 성평등지수 세계 3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도다. 인터뷰에 응한 남성 군인은 처음엔 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이제는 같은 군인일 뿐이라고 말한다(<한국일보>, 2016년 8월 26일). 여성 탈의실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교·집·지하철·마트 등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의 몸을 찍어대는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국내의 불법 촬영 범죄 규모와 유통되는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불법 촬영범죄의 영어식 표현은 우리나라 말인 ‘몰카(mol-ka)’다), 그래도 이제라도 연습해야 한다.

이 와중에 부산시 교육청이 관내 여고에 책상 가리개 설치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사가 떴다. 치마를 입어도 편하게 앉으라는 배려라고 했다. 그것은 배려인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제안한 방법대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정책 결정은 여성을 ‘인간’으로 초대하는 결정인가? 아니면 여성을 성적 대상의 자리에 정박시키는 결정인가?”

스쿨미투를 쏟아내고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은 과거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집적된 학내 성차별 문제를 들고 나왔다.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중이다. 내 몸은 성적 대상이 아니라는 외침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교육청이 하는 일이 고작 여고생의 다리를 가리는 일이라니, 할 말이 없다. 1020이 초대하고 있는 평등한 미래를 낙후된 우리들이 후~ 붙어 밀쳐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야 할 시간이다. 경청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여성 청소년의 외침을 책상 앞 가림막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심각하게 후

졌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들의 말을 잘 듣는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알아챈 것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는 아직 못 알아채고 그들은 먼저 알아챈 것들을 말이다.

#### 글을 쓴 **김홍미**리는

아이들과 함께 성평등 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페미니스트이다. 1995년에 페미니즘을 만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몸을 움직이며 산다. 멍하니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낙후된 세상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도 즐긴다. 사람을 좋아하고 희망을 믿는다. 다른 이들과 함께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페미니스트 모먼트』 등의 책을 썼다.





## 한국사회에서 1020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디지털 세계는 여성에게 무엇이었나  
하예나

페미니스트 해고한다고? 페미니즘이 밥 먹여 준다!  
김예지

예쁜 '인형'이 아닌 '사람'이고 싶다  
최선화

언제까지 SNS에서 페미니즘을 배워야 하나요?  
권우영

# 디지털 세계는 여성에게 무엇이었나

하예나

디지털성폭력아웃(DSO) 대표



## 1.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나'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은 여자애들에게 '보지'를 아나며 깔깔거렸다. 나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한 척 탄침을 피웠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알았을지는 알고 있었다.

21세기는 디지털의 발달로 정보화 시대에 이르렀다. '디지털(digital)'이란 손가락을 뜻하는 라틴어 낱말인 'digit'에서 기원된 말이다. 원래 숫자를 뜻하는 단어로 쓰였으나 현재에는 특정한 단위(파장)을 가진 이산적(연속적) 수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쉽게 말해 디지털이란, on(0)과 off(1)로 이루어진 (이산적) 연속적인 전자적 신호뿐만 아니라 이를 2진법 숫자로 처리하고 출력하는 일련의 과

정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컴퓨터 또는 핸드폰의 화면에는 디지털 데이터인 '이미지와 영상 텍스트'등이 출력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신호 값을 송수신하고 변환하는 기기를 디지털 기기라고 칭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전화기, TV 같은 기기들이 모두 디지털 기기이며, 디지털을 통해 그러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디지털은 곧 정보의 형태와 전달 방식 그 자체를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디지털'의 발명은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우선 현대 광랜(빛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선)을 통해 빛의 속도로 이동되는 디지털 정보는 전세계 각국의 거리를 좁혀 놓았다.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 우리나라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소식을 알아내려고 했다면, 아마 최소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오늘자 신문과 현재 날씨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계를 접해온 아이들은 공간과 시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광활한 디지털 정보의 공간 '사이버스페이스'의 주민으로서 자라오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또한 그들은 인터넷 속에서 주도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체적인 발화자의 역할에 익숙해진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는 이러한 디지털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의 원어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의미로 '디지털 네이티브'라 명명하였으며 성인이 되어 디지털 패러다임에 편승하게 된 세대는 이전 세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여 '디지털 이주민'이라 명명하여 그 차이를 두었다.

1997년도에는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해였다. 어쩌면 디지털 세대의 서막을 알리는 해였을 수도 있지만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사회에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때이다. 1997년, 청소년들이 찍은 촬영물이 사회에 알려지며 큰 물의가 빚어졌다. 1997년 7월 23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2학년 남자고등학생은 집에 캠코더를 설치하고 기다린 뒤 1학년 여자중학생에게 "바로 지우겠다"는 말로

거듭 졸라 촬영에 이르게 하였다. 하지만 남자고등학생은 지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영상을 세운상가에 불법적으로 판매하였다. 이 사건 속에 중학생은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오히려 영상에 등장한 사실을 ‘문란한 일탈’로 여긴 검경에 의해 ‘음란물 제작죄’라는 이름으로 가해 학생과 함께 처벌당하였다. 이후 주변인의 증언에 의해 그녀는 남자 선배에게 성폭력 또는 구타를 당한 정황이 있음이 알려졌다 성폭력 사실도 알려졌다. 그 이후로도 언론은 집요하게 피해 학생의 행적을 쫓으며 그녀의 대한 사회적 가해를 계속하였다. 그렇게 사회가 떠들썩했던 그때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 2. 컴퓨터 음란물과 ‘걸레’라는 낙인

어렵풋 생각나는 나의 기억의 시작은 컴퓨터와 함께한다. 지금처럼 얇은 화면의 컴퓨터는 아니다. 지금은 유물처럼 기억되는 뚱뚱한 모니터에 하늘색 배경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98SE. 2018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20주년을 맞이했다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그 프로그램은 인터넷이 개막했다는 2000년도에 가정용 컴퓨터를 책임지던 안방 운영체제(OS)였다.

7살이던 어린 시절의 나에게 컴퓨터는 요술 박스였다. 우리집에서 컴퓨터는 항상 부모님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오빠의 차지였다. 부모님은 컴퓨터를 들여놓고 “공부용으로 써야 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지만 오빠는 항상 부모님 몰래 컴퓨터로 게임을 했고 오락실 게임이나 CD게임을 다운받아 플레이하던 그는 2인용 게임을 할 때마다 나를 옆에 앉혔다. 주로 ‘킹오브 파이터즈’나 ‘드래곤볼’ 같은 격투 게임, 혹은 ‘포켓몬스터’ 같은 게임이었다. 나는 오빠가 게임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 신기해 따라 해보겠다고 컴퓨터에 접속해 이것저것 눌러보다 그만 바이러스에 걸려 크게 혼이 났다. 아마 된통 혼이 난 이후로는 한동안 컴퓨터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것 같다.

2000년 8월 배포된 교육부의 제7차 교육과정인 초·중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운영지침이 초등 교육에 반영되며 학교 안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진행했다.

부모님은 그런 교육 변화에 따라 나를 컴퓨터 교실로 보냈고, 초등학교 1학년부부터 ‘한글’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향은 학교 수업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숙제 또한 직접 노트나 종이에 작성해 제출하는 게 아닌 ‘한글’ 작업을 통해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 유년기부터 오빠와 어울려 놀던 어린 기억 때문인지 또래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와 친했던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내내 게임에 푹 빠져 살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PC방을 다니며 또래 아이들과 게임 대결을 하기도 했다. 싸이월드가 나오기까지, 버디버디 또한 나의 생활의 일부였다.

부모님은 오빠와 함께 컴퓨터 게임에 빠진 나를 보며 ‘여자’ 아이가 왜 이리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며 혼을 내셨다. 특히나 격투를 하고, 싸우는 시스템을 가진 컴퓨터 게임은 ‘여자아이들이’ 아닌 ‘남자아이들’의 전유물 처럼 여겨졌다. 로봇을 가지고 놀던 남자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여자인 내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일은 부자연스럽게 비춰진 모양이었다. 실제로 또래의 동성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컴퓨터 관련 이야기를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나는 조금은 특이한 존재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왜 ‘보지’나 ‘야동’이라는 말을 지껄이며 낄낄거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이유기도 했다. 당시 2006년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소위 야동이라고 불리는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에 마냥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게임을 다운받기 위해 ‘포루냐’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산’이라고 불리는 유출 영상들과, 연예인 유출 영상이 존재했고 나는 나의 오빠가 그러한 영상을 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빠가 직접 “내가 이런 영상을 본다!”라고 하진 않았더라도 같이 컴퓨터를 공유하고 게임을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정보였다. 사실은 나는 당시 그 영상을 본 적도 있었다. 호기심에 열어본 파일 속에는 여성과 남성이 몸을 섞고 있었다. 영상 제목에는 이따금 ‘걸레’라는 말이 함께 쓰였다.

여성을 비난할 때 ‘걸레’라는 말을 쓴다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 커뮤니티나 뉴스 기사에서 여성 연예인들을 비하할 때 그들은 ‘걸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아이들은 그것을 빠르게 흡수했고, 여자아이들에게 장난삼아 “너 걸

레니?”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그것이 경멸의 의미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이상하다. 의미를 모르고 툭툭 내뱉는 아이도 있었다. 나도 뜻과 의미를 모르고 걸레라는 말을 부정과 경멸의 의미로 사용하다가 ‘걸레’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해 인터넷에 검색했다. ‘걸레’는 아무에게나 몸을 내어주는 사람, 아니 여자였다. 여자들은 ‘걸레’의 의미를 알고 난 후로부터 ‘걸레’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야 했다. ‘걸레’라는 낙인이 찍히면 자연스럽게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은 녹록치 않다. 여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던 ‘버디버디’뿐만 아니라 ‘크레이지 아케이드’, ‘알투비트’와 같은 게임에는 성적 호기심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노리기 위한 채팅이 수도 없이 올라왔다. “번태너 구해요”, “번태 초당너 구해요”, “야한 거 궁금한 여자 구해요”, “여자 친구 구해요” 등등. 아마 모든 이들이 그냥 지나치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중에 여자 친구를 구한다는 게시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본 적이 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던 나에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이제부터 연애를 하자고 말했다. 연애에 대하여 잘 모르던 나는 그렇게 첫(?)연애를 시작했다. 시답지 않은 대화를 나누던 그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달라며 요청했다. 어릴 때부터 오빠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의 비틀어진 성착취 산업’을 알게 된 나는 나의 신체 사진이 어떻게 쓰일 것이라고 그때부터 어렵듯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강력하게 거부했고 그는 그렇게 사라졌다. 하지만 나처럼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아이들도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내가 여자라는 것을 알면 또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 몸 사진이나 웹캠을 통한 ‘영상 통화’를 요구하곤 했다. 한번은 ‘언니’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나에게 서로 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요청했다. 나는 모니터 너머의 그 사람이 진짜 ‘언니’인지 혹은 중년의 남성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단지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 말에 사진을 ‘교환’하자는 말에 진심으로 혹했을 때가 있었다.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던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나의 신체의 변화를 타인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사진을 교환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연예계에서 웹캠 유출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은 웹캠 속의 그녀를 맹렬히

비난했다. 나는 그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정신이 아찔해졌다. 사람들은 욕설을 하면서도 너도나도 그 영상을 다운 받아보고자 했다. 아마 내가 그때 인터넷의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나도 그녀와 같이 걸레 낙인을 두려워해야만 했을 것이다.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야동’이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두려워해야만 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무렵 알게 된 사이트가 소라넷이었다. ‘대략 10년 전 2009년 무렵의 나는 지나가는 말로 ‘소라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는 변태적인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 사이트를 접속해보았다. 그때가 처음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접한 때였다. 그때의 소라넷도 폐쇄되기 직전의 소라넷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 시절의 나는 6년 후의 내가 소라넷 폐쇄 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 3. 유통되는 ‘야동’과 폭력

그 시절 나에게 ‘야동’이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되어있었다. 아이들은 말만 하지 않을 따름이지 거의 ‘야동’을 본 적이 있었다. 남자들은 길길거리며 야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들도 “너 혹시 ‘야동’ 본 적 있니?”라며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야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미성년자가 감히 누려선 안 되는 어른들의 문화였을 뿐이다. 학교에서는 그저 ‘어른들은 저런 것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중학생 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때로 몰려 학급 컴퓨터로 ‘야동’을 틀어놓기도 했다.

2010년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의 물결과 함께 아이들은 ‘야동 사이트’의 이름만 알면 손쉽게 영상물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또래 아이들과 집에 모여 놀다가 한 번은 같이 문제의 사이트에 접속해보기도 했다. 호기심이 많은 여자아이들은 소위 ‘야동’이라고 불리는 남자아이들의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 함께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나는 일본 영상은 좀 과장된 거 같고, 서양 영상은 좀 역겨워, 역시 한국인이어서 그런가? 한국 영상이 자연스럽게 볼만한 거 같아.”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했다. 한국은 포르노가 불법이라며 투덜거리던 아이들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른들은 ‘포르노’는 봐서는 안 되는 것이라 말하기보다 어른이 되거든 포르노를 보라는 말을 더 많이 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포르노가 1990년도 극장에서 상영되던 에로영화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학생들이 ‘야동’을 접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다. 그때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내 집단 강간 사건들’이 그것에 일조했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야동) 포르노에 중독되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어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어른이 되면 보거라.” 아이들을 어르는 어른들의 말에 아이들은 “우리도 현실과 야동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라고 뽐족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이들의 의견에 전부 동의하지는 못해도, 현실과 포르노를 구분할 줄 모를 정도로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다만 ‘성욕을 억제하기 힘든’(성교육 교과서에 따르면) 남자 아이들이 그런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15년, 이러한 나의 생각이 무너졌다. 처음엔 ‘술 취한 여성’을 강간한 뒤 실제로 후기를 올린다는 소문에 이를 조사하기 위해 소라넷에 들어갔다. 소문은 사실이였다. 그들은 술 취한 여성을 상품처럼 내걸었으며, 그들끼리의 범죄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에 이를 부득부득 같던 나는 문득 ‘○○대학교 ○○녀’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흐릿한 화질과 숨겨진 듯한 카메라.

사람들은 댓글로 “저 여자 인생 끝났다”며 길길거렸다 나는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다. 여태까지 지나쳐 왔던 영상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아니 사실 나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무의식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지? 왜 문제라는 것 알아챈 그때도 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려야 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혼란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에게엔 언어가 없었다. 그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참혹하게 유린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야동’이라고, 아니면 차마 ‘야동’이라고 부르지 못해 ‘그것’이라고 말해왔던 것이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심신 미약의 여성을 강간하는 영상물은 ‘골뱅이’라 불렸고, 언제나 뉴스 옆에 붙어있었던 ‘최음

제’, ‘홍분제’ 광고는 여자를 확실하게 ‘골뱅이’로 만들 수 있는 데이트 강간 약물 이었던 것이다.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이상했다.

현실과 포르노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은 단지 아이들뿐이었을까? 우리는 모두 ‘폭력’을 포르노라고 말하며 살아왔는데? 과거의 나의 대한 혐오와 함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거짓된 것처럼 느껴졌다. 왜 나는 내가 ‘야동’이 되는 것을 두려워만 했지 그것을 보며 ‘폭력’이라고 느끼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은 ‘폭력’을 저지르며 아무도 그것이 ‘폭력’임을 알지 못하는 걸까. 왜 영상 속의 그녀는 비난받아야 하는 걸까. 세상이 180도 반전된 것 같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빨간 약을 먹은 기분이었다.

#### 4. 디지털 시대의 마녀사냥

2015년도 ‘게임 개발자’의 꿈을 안고 있던 나는 그때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디지털 성폭력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내가 디지털 성폭력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에 거창한 이유는 없다.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유였다. 누군가 영상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에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구나’가 아닌, 정당한 분노를 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지금 ‘디지털 성폭력’에 분노해 거리에 나온 여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의 역사와 함께했다. 혹자는 2000년도 유출된 연예인 유출 비디오들이 ‘한국 네트워크 강국’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말한다. 당시 유출 영상을 보기 위해 대학생들이 너도 나도 네트워크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세시대 ‘마녀사냥’에 희생된 그녀들은 ‘근대화’의 주역인가? 그녀들의 죽음 이 흑사병과 같은 재앙, 사회적 경제적 불만을 잠식시켰으므로? 나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디지털 성폭력을 단순한 ‘사생활 침해’의 범주에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디지털 시대’의 마녀사냥을 겪고 있다.

어느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에 따르면, 유럽의 마녀사냥이 가장 절정에 달한 것은 다름 아닌 ‘인쇄술’이 생겨난 근대 초였다고 말한다. 1350년 이전에 사악한 행

위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70퍼센트가 남성이었다면, 여성은 30퍼센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14세기 후반에 남녀 비율이 역전되어 16~17세기에 이르러 여성이 80%를 넘게 차지했다. 그리고 16세기 마녀사냥은 절정에 달했다.

이는 '마녀와 관련된 종교적 서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언급된다. "여성이 혼자 생각할 때에는 사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마귀는 대개 타락한 신앙인이나 신심이 약한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 때문에 마귀는 여성을 더 선호하며 찾아다닌다." 등등. 이러한 '여성혐오'가 담긴 서적은 수천 부가 인쇄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녀사냥의 법규에 따라 대개 '보호할 남성'이 없는 '미혼 여성'과 '과부', '힘 없는 노인' 등이 수없이 많이 처형되었다.

실비아 페데리치(Silvia Federici)는 자신의 책 『캘리번과 마녀』(갈무리, 2011)에서 이러한 마녀사냥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서술한다. 마녀사냥은 여성들이 출산을 통제하는 데에 써왔던 모든 방법(피임)을 악마적 방법이라고 몰아붙였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했다. 그리고 여성의 신체를 사적 영역에 대한 노동으로 밀어 넣은 뒤 여성의 노동을 무급화시켰다.

"산파나 모성을 거부한 여성, 혹은 이웃집에서 딸감이나 버터를 훔쳐서 생계를 이어가던 거지들만 마녀에 속했던 것이 아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문란한 여성들(창녀나 간통한 여성,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의 구속 밖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행사한 여성들) 또한 마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재판에서 '평판이 나쁜' 것은 유죄의 증거였다. 말대답을 하거나, 논쟁을 하고 욕을 하거나, 고문을 받으면서도 울부짖지 않는 반항적인 여성들도 마녀에 속했다. 여기서 '반항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성들이 연루된 특정한 전복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캘리번과 마녀』 중에서

2000년도부터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빠르게 번져나갔던 디지털 성폭력도 비슷한 맥락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못매를 맞아야 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이 결혼과 출산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그러한 이유 단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걸레'라는 이름으

로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법부'와 '언론' 또한 가해자의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그녀들을 가해했다. 영상에 등장한 그녀가 '성적으로 주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그녀들을 지탄하는 폭력의 수위는 높았다. 사람들은 그녀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영상 촬영 피해자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심심치 않게 돌았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디지털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즉 '걸레'가 되지 않기 위해 무의미한 발버둥을 쳐야 했다. 즉 '성적으로 무지' 하며 '수동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이 데이트 성폭력에서 '협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 또한 눈여겨보아야 하는 현상이다.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배운 가부장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성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고자 하는 행위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디지털 폭력에 있어 지목되는 '개똥녀', '루저녀', '빼륌녀'와 같은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은 '욕설'과 '막말'을 했던 이유로 무자비한 신상 털이와 공개적 테러 및 괴롭힘 등을 당했다. 2010년 해당 사건을 풀이한 기사에 인용에서 "디지털 사회가 만들어낸 판옵티콘", "자신의 행동이 언제든 비추어지는 우리의 성" 등으로 비유한다.<sup>1)</sup> 하지만 어쩌서 그들이 사냥하는 것이 항상 '여성'이었던지는 묻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여성에게만 향하는 것에 의문을 가한 언론도 있었다.<sup>2)</sup>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이 '여성혐오'임을 알지 못했다.

여초 사이트에 대한 '도덕적 억압' 또한 마찬가지다. 여태까지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몰카'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조장 글이 올라와도 '일부'의 일이라고 말하던 그들은 여초 사이트에 대해선 태도를 달리했다. 집단에서도 여성은 '개인'이 아닌 '여성'으로 존재해야 했다.

1) 「개똥녀·루저녀·빼륌녀 ... '디지털 감시사회' 누구나 표적」 <중앙일보>, 2010년 5월 19일, <https://news.joins.com/article/4181781>

2) 「된장녀·개똥녀·루저녀·빼륌녀 ... 인터넷 OO녀의 사회심리학」 <MK News>, 2010년 5월 21일, <http://news.mk.co.kr/newsRead.php?no=262163&year=2010>



## 5. 디지털 성폭력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는 이쯤에서 물어야 한다. 2000년대 우리 사회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다준 디지털 문명은 여성에게 친절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억압하는 사회와 문화에 의해 폭력을 폭력이라고 느낄 자유마저 삭제당한 채,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통해 응당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빼앗겼으며 '여성'으로서의 자아 그 자체가 억압되고 통제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에게 가한 피해가 아닌 언론과 검경이 보여준 여성 전체에 대한 폭력, 그 극단이었다. 디지털이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서 재이용된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은 한국의 마녀사냥이라 보아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그들은 근대 초의 '마녀사냥꾼'과 닮아있다. 그들에게 마녀사냥이란 일종의 유희이자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공포의 확산이었다. 디지털 성폭력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의 유희이자 공포의 확산이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지금, 침묵 속에서 분노를 참아왔던 그녀들의 목소리가 2015년 일종의 '과격함' 형태로 세상에 튀어나오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그것을 '과격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한다. 소라넷에는 하루 평균 2개의 강간 인증 글이 올라왔다. 2001년도에 만들어진 '훔쳐보기 게시판'은 2010년부터 하루에 수십 개의 '불법 촬영' 사진이 올라왔다. 업로드된 한국 영상은 모두 '불법 촬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2015년 소라넷을 '야동' 사이트가 아닌 '성폭력' 사이트라 칭했다.

두려움에 떨며 살 바에는 마녀가 될 것이다. 불태워지는 마녀가 아닌 그들이 혐오해 마지않는 마녀가 될 것이다. 2015년 '소라넷 폐지' 운동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혀를 찼다. 소라넷이 사라져도 어차피 디지털 성폭력은 존재할 거라고,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고.

소라넷이 사라진 지금 혀를 차던 그들의 말처럼 디지털 성폭력이 더욱 증가했는지, 혹은 줄었는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단 한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이제 '디지털 성폭력'을 더 이상 '야동'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 글을 쓴 하에나는

메갈리아가 일으킨 페미니즘 붐으로 처음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으며 2015년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가로 일해왔다. 1남 2녀중 장녀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많은 사람들이 본명으로 알고 있는 '하에나'는 사실 모계사회의 육식동물인 하이에나에서 따온 활동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이에나를 '탈취자'로 인식하지만 이는 비호감적인 생김새로 인해 생겨난 편견이다. 하이에나는 육상에 존재하는 육식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구력과 집요한 성격을 가진 최고의 사냥꾼이다.



# 페미니스트 해고라고? 페미니즘이 밥 먹여 준다!<sup>1)</sup>

김예지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기획국장  
서울YWCA 대학·청년Y회원



## 1. “페미니즘이 뭐니 회사에서 안 좋게 봐요”

2017년 12월, 외식 프랜차이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 채용에 지원했던 한 여성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됐다. 피해 여성은 “페미니즘 활동하고 다닌다고, 뽑으면 문제 생길 사람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페이스북 활동 기록들과 함께”라며 담당자와의 메신저 내용을 SNS에 올렸다. 아웃백에서 지원자 합격을 번복한 이유는 그가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이다. 올해 6월에는 커피전문점 이디야의 한 지점주가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참여한 여성 종업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디야 본사는 진상 파악에 나섰고, “페미니스트이기에 부당 해고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주

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낸 이들이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우리는 빵을 원한다. 또한 장미도.” 1912년 미국 로렌스 섬유공장에서 파업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이 외친 말이다. 그들은 단순히 노동권 보장만을 위해 투쟁하지 않았다. 생존을 의미하는 ‘빵’과 권리를 의미하는 ‘장미’를 달라며, 생존을 위한 ‘노동권’과 함께 ‘여성의 권리’ 보장도 외쳤다. 노동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고용, 임금 등 노동환경 차별은 여성들이 사회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시작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지난해 2월 “저출생(저출산) 원인이 여성들의 고스펙에 있다”면서 “불필요한 고스펙에 불이익을 줘 여성들이 눈을 낮춰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은 남성과 결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비판을 받았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결혼 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사회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아내, 주부, 엄마로서 독박유아, 독박가사를 강요받은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지내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이미 경력이 단절된 40-50대 여성들은 노동환경이 좋은 곳에선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밀려난다.

대한민국 여성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은 부족할 뿐더러 실효성도 낮다. 여성들은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페미니즘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다. 그러나 남들보다 나은 삶도 아닌, 단지 남들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여성은 일할 권리조차 박탈당한다. 취업담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한다. “SNS 관리 잘 하세요. 페미니즘이니 뭐니 이런 거 회사에서 안 좋게 봐요.”

페미니즘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번듯한 직장 얻어서 밥 벌어 먹으려면 페미니스트인 것을 숨기란다. 페미니스트가 무슨 전과자도 아니고 숨길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내 권리 찾겠다는데 말이다. 페미니즘이 밥 먹여 주냐고? 페미니즘 덕분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투표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페미니즘이 아니면 무엇이 여성들에게 밥과 권리를 주었는가.

1) 이 글은 월간「한국YWCA」78월 호에 실린 특집 '청년여성'과 페미니즘의 글을 필자의 허락을 얻어 재수록한 것이다.

## 2. 취업생 청년 여성인 나, 그리고 YWCA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나는 종종 이런 소리를 듣는다. “요즘 여대생들 기가 너무 세서 회사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던데.” 아직 취업시장에 뛰어들어보지 않은 나로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하지만 이런 말이 여성 취업생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아웃백과 이디야만 봐도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가.

남성들에 의해 끊임없이 대상화되는 여성, 제대로 된 법적 제도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이 두 가지 짐을 모두 지고 있는 여성청년인 나는 사회로의 첫 발을 디디기 전부터 발을 떼기조차 무서워진다. A로 채워진 성적표를 받기 위해, 높은 어학점수를 받기 위해, 똑같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님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인 내가 내 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유리장벽에 부딪힌다.

유리장벽에 부딪혀 취업시장의 문턱도 밟지 못하고 나가떨어진 여성청년들에게 남성들은 “이런 것도 못 버티니까 여자들이 큰일을 못하는 거야”라고 말한다. 기성세대들은 “우리 때보다 먹고 살기도 좋아졌구만, 요즘 젊은 애들은 나약해서 못쓰겠어”라고 말한다.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사회에서 우리가 못 버티는 것이 아닌 버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세대 청년들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모진 것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바로 YWCA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 한해 YWCA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밥줄이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Me Too”를 외치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했다. 권력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지만 연대하는 여성은 세령게티 초원에서 호랑이도 이겨내는 물소 떼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차례이다. 끊임없이 여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촉구하고,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YWCA의 숙명이다.

나 또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청년의 권리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같이 투쟁하는 여성청년 운동가로 성장할 것이다. YWCA에서 수많은 여성지도자와 청년운동가를 배출한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이라 믿는다.



피해 여성과 아웃백 담당자와의 메신저 내용(출처 : <여성신문>)

글을 쓴 **김예지**는

현재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기획국장이며 서울YWCA 민주시민동아리 '파동' 회원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여성청년으로서 페미니즘과 청년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예쁜 ‘인형’이 아닌 ‘사람’이고 싶다<sup>1)</sup>

최선화

수원YWCA 대학·청년Y 회원



## 1. 누가 ‘꾸밈노동’을 강요하는가

여성들은 언제부터 꾸미기를 시작하고, 코르셋을 입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사회통념에 맞춰 나를 꾸밀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유아 시절엔 ‘예쁜’ 여자인형을 놓고 화장놀이, 옷 입히기 놀이 등 자연스럽게 꾸밈놀이를 하며 자랐다.

말을 배우면서 보기 시작한 영화, TV, 만화 등에서 여성의 화장이나 예쁜 옷, 다이어트 고민은 당연한 주제였다. 심지어 여성 의류와 화장품을 선전하는 광고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원피스”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등의 문구로 여성 소비자의 구매를 독려했다.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디어 속 여성들

1) 이 글은 월간『한국YWCA』 78월 호에 실린 특집 ‘청년여성과 페미니즘’의 글을 필자의 허락을 얻어 재수록한 것이다.

의 외모에 익숙해졌다.

“너 오늘 화장 안 했어? 좀 아파 보인다.” “여자들이 화장하는 건 기본 예의지.”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화장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간 날이면 어김없이 동아리 선배에게 들었던 말이다. 나뿐만 아니라 화장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간 여성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왜 우리는 화장을 해야지만 ‘아프지 않고’, ‘예의 있어’ 보이는 것일까. 세대 여성들은 외모를 향한 사회적 억압에 질문하기 시작했다. 외모 꾸밈은 노동에 비유할 만큼 고돼서 ‘꾸밈노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꾸밈노동의 해방을 외치는 ‘탈코르셋 운동’을 낳았다.

“사회의 시선에 억압받고 싶지 않아요!” 요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펼쳐지는 탈코르셋 운동이 1020 여성들에게 큰 화제다. ‘코르셋’은 여성의 몸매를 날씬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고정하는 보정속옷이다. 과거코르셋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져 숨지는 여성들이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옷이었다. 그만큼 여성에게 강요된 아름다움의 상징이 코르셋이다.

탈코르셋은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짧은 치마, 하얀 피부, 짙은 화장까지 그동안 여성들에게 강요된 아름다움의 굴레였던 ‘코르셋’을 벗어 던지자는 움직임으로 여성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꾸미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이다. 여성들에게 획일화된 외모 기준과 여성성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의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다.

탈코르셋 운동은 ‘꾸밈노동’에 반대하며 화장 안 하기, 다이어트 안 하기, 하이힐 안 신기, 브래지어 안 입기, 겨드랑이 제모하지 않기, 긴 머리 자르기 등으로 실천되고 있다. 트위터와 유튜브에 탈코르셋을 검색하면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이 뜬다. 사용하던 모든 화장품을 부수고 버린 사진과 영상엔 해시태그로 ‘탈코르셋’이 적혀 있다. 화장방법을 영상으로 보여주던 뷰티 유튜브가 탈코르셋을 선언하고, 채널을 내려놓기도 했다. 탈코르셋 운동은 많은 여성들의 변화를 보여줬다. 동시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꾸밈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했는지도 한눈에 보였다. 탈코르셋 운동의 중심에는 1020세대가 있다. 직장, 대학교, 중·고등학교 등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탈코르셋을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있다.

탈코르셋을 행동으로 옮긴 여성들은 “편하다” “아침에 등교나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다운 나를 찾았다” 등의 후기를 털어냈다. 가장 눈길을 끈 소감은 “우리는 예뻐야만 하는 인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였다.

## 2. ‘쇼트커트 여자가 아닌 그냥 ‘나

나는 몇 달 전 쇼트커트 스타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유는 딱히 없다. 굳이 뽑자면 ‘더워지니까’ ‘해보고 싶어서’ 정도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진 걸 느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누구랑 헤어졌어” “요즘 힘들어?”였다. 대부분 남성들이 건넨 말이었다. 아, 여자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이별하고 실연당한 여자가 되는 세상에 나는 살고 있었다.

“남자 같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정확히 옮기자면 “예쁜 최성민(남동생) 같다”라는 말이었다. 웃어 넘겼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쇼트커트는 남자들만의 전용인가’ ‘왜 쇼트커트 스타일의 여성들은 남자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쇼트커트를 하든, 바지를 입든, 화장을 안 하든 나는 그냥 최선화다. 나의 바람은 세상이 ‘여자’ 최선화가 아닌 ‘인간’ 최선화로 बद라라는 것이다. 친구들과 탈코르셋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의견이 나뉜다. 탈코르셋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탈코르셋을 지지하지 않는 친구들은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나를 꾸미고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좋을 뿐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꾸미는 일과 꾸미지 않는 일은 모두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아름다움과 꾸밈이 왜 여성에게만 강요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많은 남성들은 “우리는 화장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이어트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당연하듯 여성들에게 꾸며진 외모의 아름다움을 요구해왔다.

선택과 가꿈처럼 보이는 꾸밈이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여성’은 아름답고 날씬

해야 한다’는 굴레였던 것이다. 꾸밈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있는 그대로 ‘인간’이란 존재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꾸밈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글을 쓴 최선화는

YWCA Y-틴 회원으로 활동했고,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여성, 평화, 청년, 탈핵 등 Y의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다. YWCA 생명비전연구소의 기독교성주의 연구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여러 책들과 활동들을 통해 페미니스트로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 언제까지 SNS에서 페미니즘을 배워야 하나요? <sup>1)</sup>

권우영

안산YWCA Y-틴 회원



## 1. 왜 여자에게만 참견할까

페미니즘은 이제 10대들에게도 가까운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 10대 청소년에게 성차별은 일상이나 다름없다. 학교, 학원, 집 등 많은 곳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주로 듣는 말부터 얘기하자면 “여자가~”라고 시작하는 말이다. “여자가 어떻게 민낯으로 다니니”라던가 “여잔데 살 빼야지”라던가 정말 어이없고 화나는 말을 매일같이 듣는다.

여자라면 항상 조신하고 얌전하게 집안 일만 해야 하고, 언제든지 예쁘게 꾸며야 하고, 힘든 일은 남자가 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야 할까. 답답해서 못살겠다. 그러면 남자는 왜 민낯으로 다니는데!

1) 이 글은 월간「한국YWCA」 7·8월 호에 실린 특집 '청년여성과 페미니즘의 글을 필자의 허락을 얻어 재수록한 것이다.

당신들은 몸매관리 왜 안 하는데! 본인들부터 제대로 하고 그런 말을 하던가, 왜 아무 문제없이 잘살고 있는데 참견일까.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항상 듣다 보니 차별 발언인지도 몰랐다. 최근 페미니즘을 알게 되고서야 성차별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쓰고 예민해진다. 가령 어떤 문장에서 ‘여자가’, ‘남자가’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성차별 발언이다. 그동안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런 고정관념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 차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직 많다는 게 안타깝다. 우리는 성차별 발언만큼 혐오 발언도 일상에서 많이 쓰고, 많이 듣고 있다.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은 ‘한남’, ‘김치녀’ 또는 ‘무슨 년’ 등이다. 이런 말이 좋지 않은 표현이라는 걸 알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기에 혐오 발언이 계속 생산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런 표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속상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혐오 발언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슬프기까지 했다.

나는 일상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를 하나둘씩 발견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느끼는 이런 불편함이 무엇인지 궁금해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평소 좋아하는 유튜버 영상을 통해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고 관심이 생겼다. 페미니즘을 설명하는 조금은 긴 영상이었는데 궁금증을 푸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모르는 내용이 더 많았다. 페미니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페미니즘을 제대로 알려주는 매체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우린 페미니즘 교육을 원한다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었다. 지난 7월 26일(목)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10대를 위한 페미니즘 입문강좌 ‘다시 만난 세계’를 찾았다. 강의를 들으니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페미니즘에 대해 ‘진짜로’ 깊이 배웠다.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이 대단해 보였고,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왜 이제야 이런 강의를 들었는지 후회도 됐다. ‘더 빨

리 알아볼 걸' '더 많이 알아볼 걸'이라는 생각만 수십 번 했다. 말로만 듣던 10대 페미니스트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난 것도 짜릿했다. 내 또래들을 보니 생각보다 더 대단한 거 같고,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싶어졌다. 나처럼 성 차별과 혐오를 겪은 학생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어쩌면 모든 학생이 같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위 친구들이 하나같이 날 쳐다봤다. 당황스러웠다. 못할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했다. 마음 같아선 뭐라고 한마디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용기가 부족했다.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을 것이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페미니즘이 더 많이 알려지고, 특히 10대 페미니스트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정규교육 시간에 페미니즘 과목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페미니즘을 올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페미니스트 교사도 생겼으면 한다. 매주 1시간, 아니면 한 달에 1시간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페미니즘이 우리 삶과 일상의 문제라는 것을 수업을 통해 제대로 배우길 바란다. 교복도 바뀌야 한다. 여학생 교복은 치마이고, 남학생 교복은 바지다. 심지어 아동복과 비슷한 사이즈의 여학생 교복도 있다. 교복을 바지로 통합하거나 여학생용 바지를 만들어 우리 몸에 편한 교복을 입었으면 한다.

#### 글을 쓴 권우영은

안산 초지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안산YWCA 청소년 동아리인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장 프로젝트'의 부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Y-틴 활동을 통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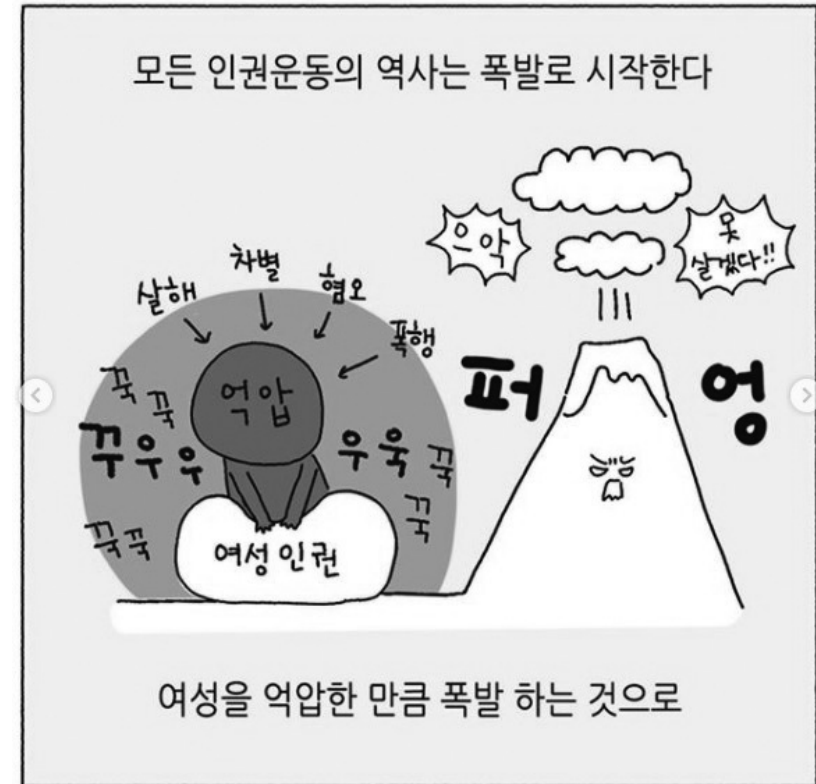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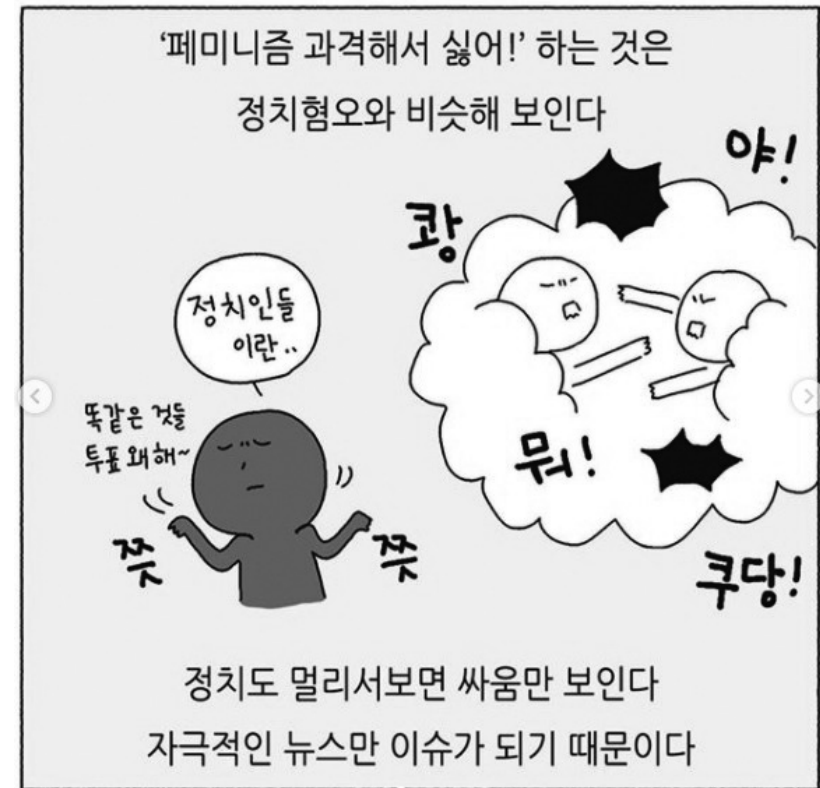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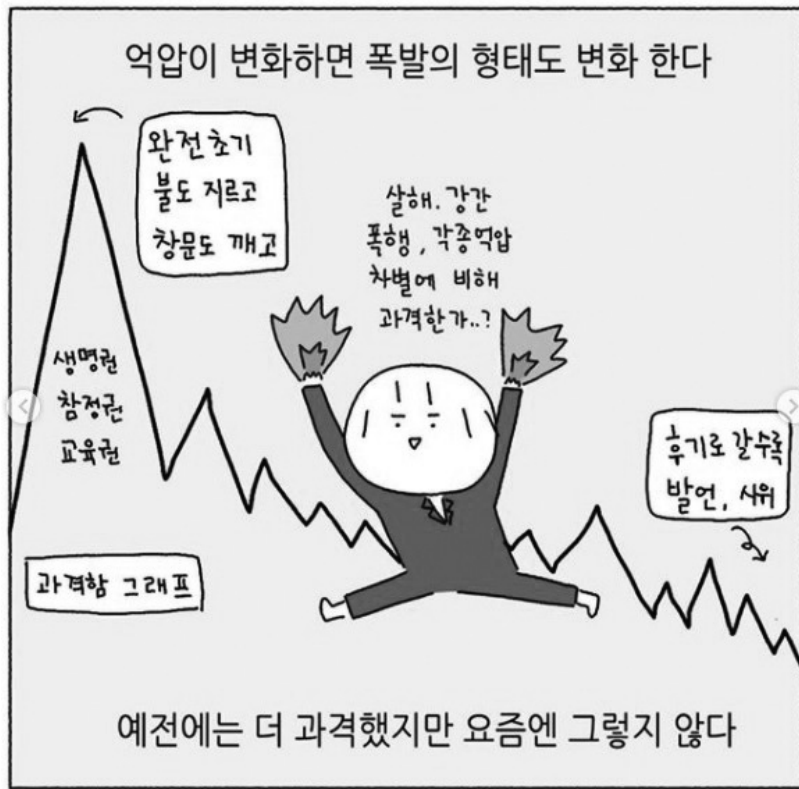
## 페미니스트 웹툰

차별은 비용이 따른다  
손아람





1) Instagram의 femitoon(페미툰) 손아람 작가의 [차별은 비용이 따른다] #페미툰#feminist에서 퍼온 글이다. 링크주소 : <https://www.instagram.com/p/BjXUXL3H2h/>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보면

민생을 위해  
목소리 높이고



성실히  
입법 활동을 하는



성실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알 수 있다

페미니즘도 멀리서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못 듣는다  
주로 그런 가십이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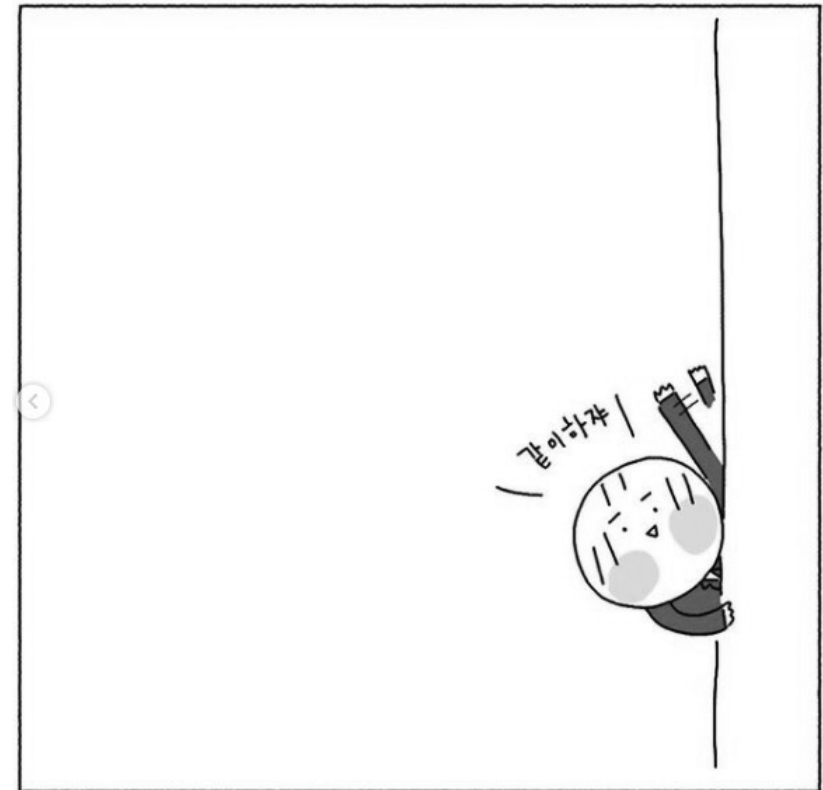
거 참  
시끄럽구만



멀찍이

페미니즘이 과격하게만 보인다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건 아닐까?







## 한국사회 1020 여성 이슈들

10대 여성들, 코르셋을 벗고 미투를 외치다  
김성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이다  
조진경

청년여성에게 지역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김김혜영

# 10대 여성들, 코르셋을 벗고 미투를 외치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위원장



## 1. 들어가며

아이가 세상으로 나온 순간 울음소리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 혹은 조산사의 “축하합니다. 공주님(왕자님)입니다”라는 선언이 이어진다. 그들은 막 태어난 아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기준은 성기이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고추(남성의 성기)이다. 고추가 있으면 남자, 없으면 여자이다. 의사의 선언은 아이들의 성기를 확인한 부모에 의해 승인되고 이후 출생 등록을 통해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여성, 남성의 성기를 모두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 의사, 조산사는 아이에게 어떤 성별을 부여할 것인지 곤란한 처지가 되고, 부모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아이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부모는 자신들의 욕구와 의사의 견해 어떤 성기가 좀 더 기준에 가까운 것인지를 종합하여 선택을 한다. 의학적 조치가

뒤를 따른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이라는 분류에서 벗어난 존재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선택을 유예할 수도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부모는 아이의 성별을 선택해야만 한다. 국가는 국민을 여성과 남성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근대 의학-외과적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양성을 모두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일제 식민지 시대 초기까지의 기록을 보면 여성,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공동체는 존재를 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이들은 점차 성별의 구분을 교란시키는 변태적이며 불온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두 개의 성 중 하나로 편재시켜야 한다는 논의와 더불어 외과적 수술이 강제되었다.

사람은 원래부터 여자와 남자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현실의 일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람들의 생물학적 성, 즉 섹스를 단 두 가지로 규정하고 그 외의 존재를 지워버린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두 개의 성으로 인간을 구별하는 것을 ‘성별 이분법’이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외양을 통해 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갖게 되고 각각의 사람들을 식별을 할 수 있다. 탄생의 순간, 의사나 부모가 성기를 통해 성별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이가 성장하면 그의 성기를 보지 않아도 성별을 알 수 있다. 왜일까? 성기와 무관하게 성별에 따라 외모, 행동, 옷차림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성별에 따라 기대되거나 그러할 것이라는 규범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이 규범을 충실히 이행한다. 규범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공기와 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범에 맞지 않으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되거나 불편한 존재가 된다. 갓난아이의 부모를 비롯한 주변인들은 여성, 남성에 걸맞은 말, 태도를 취하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러한 규범을 내면화하고 스스로 성별 규범을 수행한다. 여자아이는 어느 순간 치마를 고집하고 남자아이는 어느 순간 분홍색을 거부하게 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길러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간은 성별 수행을 통해 여성이 되고 남성이 된다. 사회문화적인 성-젠더는 이렇게 형성된다. 문제는 성별에 위계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남성(고추 있음)을 인간됨과 주체성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다른 집단(고추 없음)을 그 타자 혹은 비체로 위치 지우면서<sup>1)</sup> 남성 아래에 여성을 배치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거꾸로 위계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

성별과 성차가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성차별, 성폭력은 뿌리 뽑을 수 있다.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남자보다 높으며 여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근대는 여성들이 살기에 가장 혹독한 시대이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시선과 기준에 의해 수치화되고, 품평의 대상이 되며, 여성의 노동은 저임금 혹은 아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섹슈얼리티는 임신과 출산과 연결될 때에만 인정된다. 이 시대는 여성들에게 개념녀-돈을 벌어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예쁘고 섹시하지만 지나쳐서는 안 되고 똑똑하지만 남자의 기를 살릴 줄 아는 여성-이 될 것을 강요한다. 도달할 수 없는 여성의 모습을 상정해 놓고 이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XX녀, '보슬아치'로 칭하며 '삼일한', '보전개', '자박뽕' 등의 혐오 폭력을 가한다. 여성혐오는 연령과 직업, 지위를 막론하고 이 시대 남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 2. 여성혐오, 성차별의 기원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상품이다.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들어간 인간의 노동력이며 그 대가는 임금이다. 임금은 노동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인간의 노동력, 현실에서는 매일 노동할 수 있도록 먹고 잠자는 데 드는 비용, 즉 생활비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 있다. 노동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임신과 출산의 비용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가? 갓 태어난 아이가 노동이 가능하게끔 성장하려면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드는 비용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가? 임신, 출산, 양육을 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받고 있는가? 뭔가 이상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생긴다.

1) 김수자, 「십대 페미니즘을 통해 일상을 다시 보다」 『여성/성이론』, 여이연, 2018 여름호.

새끼를 낳고 키우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며 이유이고 자궁이 있는 여성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노동이며 생산인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노동자가 다음 날도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육체적, 정신적 돌봄을 하는 것은 분명히 노동이고 생산인데 대가는 여성에게 직접 주어지지 않는다. 의문을 애초에 봉쇄하고 여성들의 노동을 대가 없이 취하려면 여성의 노동은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이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자연의 법칙, 섭리여야 한다.

세상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이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살림을 하고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생기면 아무지계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고 짝을 맺어주는 것이 인간-여성의 행복한 삶의 각본이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결혼을 해도 일을 계속 하는 소위 '커리어 우먼'이 여성의 삶의 새로운 각본으로 등장했다.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여성차별을 근절하려는 여성운동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로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가정, 취업, 직장 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차별이 시정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저임금의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남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제하였다. 일부 여성들은 취업 전쟁에서 남성들과 경쟁해 승리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여성들에게는 저임금 일자리가 주어졌고, 일터에서의 노동 후에도 가정이라는 제2의 일터에서 다시 노동을 해야 했다.

이 시기 여성혐오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성혐오는 디지털 하위문화를 통해 하나의 놀이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sup>2)</sup> 젊은 여성들은 허영심 넘치고 소비적이며 책임감 없고 이기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성의 노동에 무임승차하거나 성을 무기로 하여 남성을 착취하는 뻔뻔스러운 존재로 그려졌다.<sup>3)</sup> 여성혐오를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990년대 이후 여성들은 여러 영역에서 남성들

2) 윤보라, 「일베와 여성혐오」 『진보평론』, 57호, 2013.

3) 김보명,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한국여성학』, 34호, 2018.

의 경쟁상대로 등장하였는데 IMF 이후 2000년대는 자본가들에게는 헐값에 회사와 공장을 사들이고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였지만,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층 계급, 젊은 세대의 남성들에서부터 그동안 누려왔던 남성 특권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이 시기 여성들의 처지는 남성 일반보다 더 악화되었다.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고, 일부는 다시 가정으로 유체되고 일부는 임금이 반 토막 난 채 일터의 비정규직이 되었다. 남성 생계부양자의 실직으로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했으며 20~30대 여성들은 취업 자체가 봉쇄되었다. 여성들이 그나마 차별이 덜한 성적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는 직군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여성 전문직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자신들의 추락을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여성혐오는 여성을 두 개의 범주-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로 구분하고 후자를 처벌함으로써 남성의 상실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여성혐오는 남성 청년 집단에서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교실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 재미, 장난이라는 외피를 쓴 여성혐오, 소수자혐오 발화가 시작되었다. 남학생들은 서로를 XX년이라 부르는데 그런 욕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개XX 보다 훨씬 더 욕하는 맛이 난다고 한다.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욕이다. 여성혐오는 여성을 동물보다 더 낮은 위치에 두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양 기모띠’<sup>4)</sup>라는 표현이 초등학교에서 대 유행이 되었다. 여성을 성적 대상-성기로 환원하고 남성의 성적 공격이 여성에게는 기분 좋음이 되는 방식의 여성 재현에 여학생들은 큰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했다. 여교사들도 이런 표현을 중단시키기 위해 애를 썼으나 여성들의 문제 제기는 목소리가 되지 못하였고 별거 아닌 것에 예민한 존재, 혹은 포르노를 본 경험이 있는, 성적으로 소위 까진 여성으로 다시 규정되는

4) 일본의 성인 포르노물인 AV(Adult Video)에서 여성들이 내뱉는 말. 氣持ちいい(기모찌이)이라는 일본어로 성행위시의 쾌감을 말하는 것인데, 성인 음란물을 많이 본 남학생들에게 ‘양 기모띠’라는 변형된 형태로 널리 퍼졌다.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응, 니에미, 느금마’라는 말은 여성 집단 전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 3. 학교는 남성중심적 시공간이다

학교는 여성혐오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남학생들의 여성혐오 표현은 여성들에게만 들릴 뿐이었다. 선생님에게 대들었다고 징계 처분을 받는 학생들은 있어도 여성혐오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없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정신적 폭력인 여성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없었다. 왜냐하면 남성 교사나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 학창시절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여성을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폭력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한다. 여학생들에게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관심, 혹은 남성들의 특성 혹은 장난으로 이해하도록 배운다. 성적 침해와 모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할 것을 배울 뿐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차별이 성폭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성희롱, 성폭력을 몸에 대한 침해로 협소화함으로써 여성혐오가 심각한 폭력인 줄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남성의 폭력은 정당화되고 재생산된다. 여성혐오 표현을 들어도 한 귀로 흘리는 것 이외에 직접적 행동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학교는 남성 중심적 시공간이다. 교사들의 태도 이외에도 교과서, 교육과정, 학교 문화는 학생들에게 여성다움/남성다움을 내면화시킨다. 교장, 담임교사는 아버지, 어머니이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이듯이, 학교와 교사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다며 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남학생들에게는 남자가 그럴 수도, 혹은 남자라면 그런 일도 해봐야지 등 규범 어기기가 허용되거나 영웅담이 되기도 한다. 여학생일수록 성실하고 안전하며 똑똑하지만 나대지 않고 용모가 단정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주를 거부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벗어난 여자아이들은 자기관리를 못하는 아이, 게으른 아이, 이기적인 아이, 기가 썩 아이, 까진 아이, 남자 망치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

렇듯 학교는 학생들을 ‘여’성과 ‘남’성으로 만들어 낸다. 그러나 성별과 무관하게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학교는 성평등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학교 안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신자유주의, 모든 것이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된 시대에 10대의 섹슈얼리티도 상품이 되며, 성적 대상화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 10대 여성 연예인들은 성적 무지와 성적 매력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남성 중심 사회의 환호를 받는다. 그들은 개성과 재능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상품이다. 그들의 인기와 수입은 10대의 장래 희망을 바꿔놓았으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가 자본임을 각인시켰으며 성적 매력이 사람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었다. 일상에서 도달할 수 없는 외모와 몸매이지만 여학생들에게는 도달해야만 하는 기준이 되었다.

사춘기는 몸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10대 여성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외모, 몸매 기준을 들이대며, 여학생 스스로도 그런 기준에 맞춰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화장을 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몸이 바짝 마르지 않으면 놀림을 당한다. 십대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가정과 학교이다. 요즘은 부모들도 여학생들의 몸매를 걱정하고 먹을거리를 제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학교에서는 친구뿐만 아니라 교사도 일상적으로 얼굴, 외모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을 규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일상적 규제, 모욕, 비하를 견디는 과정이다.

2014년 메갈리아의 미러링을 통해서 여성들은 쾌감을 느끼며 전복을 경험하였다. 미러링은 여성들이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으나 미러링이 확산되면서 강렬한 남성혐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혐오를 미러링의 방식으로 발화자에게 돌려주기란 쉽지 않다. 남성혐오냐는 공격을 받기 십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남성의 성기를 사용하는 ‘X나’라는 욕 표현이 있다. 최근에는 ‘조낸’, ‘열나’, ‘존나’ 등 다른 버전으로 욕이라고 보다는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의 어원이 남성의 성기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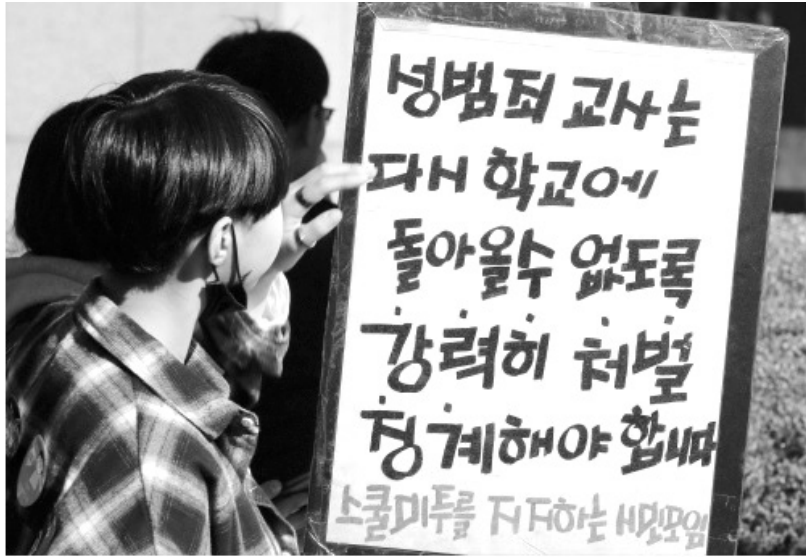
을 대다수 학생들은 모른다. 어원을 알려주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깜짝 놀란다. 미러링은 남성들의 혐오 표현을 패러디하기 때문에 성기 및 성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들이 성기나 성적 단어를 소리 내어 말하기란 쉽지 않다. 단어 자체가 여성에게는 금기이다. 미러링이 글자에서 목소리로 현실에서 구사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 하지만 미러링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다. 미러링은 여성혐오의 문법적 구조를 뒤집어 여성을 (혐오) 발화의 주체로, 그리고 그 남성을 대상으로 위치 짓는 것<sup>5)</sup>에서 시작된다. 이를 통해 여성혐오가 문제적이며 여성혐오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가시화하게 된다. 그리고 혐오로 인한 수치심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저항의 힘이 된다. 저항의 경험은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다.

#### 4.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페미니즘의 부상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이 무엇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직면하게 되었다. ‘운이 좋아 살아남은’ 여성들은 세계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때 여성들이 이끌었던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쿨미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여학생들은 당시에 큰 충격을 받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하였으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과정에서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10~20대 여성들이 스쿨미투 공론화의 주체들이다. 여성 청소년들은 나의 두려움이 개인적 경험이 아닌 여성이라는 집단의 경험을 알게 되었고 여성이 받는 차별과 역압이 남성 중심 사회로부터 나온 것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인식한다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갖는 것이다. 표현은 행동이며 실천이다.

여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다시 보게 되면서 불화가 시작되었다. 가부장적 착한 딸이라는 위치를 견어차고 저항을 하였으나 10대의 취약함-가정을 벗어나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조건-은 문제의식을 밀고 나가거나 저항을 집단화

5) 김보명, 위의 글.



스쿨미투 집회. 연합뉴스

출처 : <SBS뉴스, 사진=연합뉴스>, 2018년 11월 3일.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학교는 달랐다.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주체들이 있었다. 남학생들의 혐오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하며 포스트잇 액션이 나타났다. 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고발도 터지기 시작하였다. 성별의 권력에 나이 권력, 학생의 미래-입시를 쥐고 있는 권력, 전통적인 가르친다는 권력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여학생들은 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공론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들의 증언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피해 호소는 사실인지 의심받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치부되었다. 학교는 가해 교사들의 행위를 교육 활동 중에 벌어진 우발적 행위였으며 가해자 옹호에 급급하거나 서둘러 형식적인 사과와 가해자 한두 명을 경고와 같은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의 스쿨미투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개별 학교 차원에서 마무리되었다.

## 5. 스쿨미투와 탈코르셋운동

2018년 1월 검찰 내 성희롱 고발에 이어 문화 예술계, 대학의 미투운동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여성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당했다”라는 피해 고발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공론화로 연대하기 시작하였다. 여학생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던 교사들의 성희롱, 성폭력을 실명으로 고발하였다. 졸업생들이 시작하면 재학생들이 뒤를 이었다. 재학생이 나서면 졸업생들이 뒤를 따랐다.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희롱, 성폭력 교사는 여전히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후배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분노는 들불처럼 타올랐다. 이들을 그대로 두면 후배들이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것이기에 나의 피해를 고발함으로써 나의 고통을 끝내고 가해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이후 다른 여성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였다. 한 두 개 학교에서 시작된 미투는 현재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60여 개의 학교로 번져나가고 있다. 해결된 학교도 있지만 이제 시작되는 학교도 있다.



▶ 지난 9월 11일, 서울 광남중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 성추행을 고발하는 포스트잇을 교내 곳곳에 붙이며 항의했다. (광남중학교#MeToo 제공)

출처 : <일다>, 2018년 11월 2일.

스쿨미투는 비청소년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직접 사회에 가해 행위를 고발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 행동이다. 고발 계정을 만들고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총공(격)'이라는 온라인 집단 민원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SNS로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고 연대를 한다. 그리고 2018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는 오프라인 집회를 열었다. 이 모든 것을 비청소년-교사, 시민단체 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면서 우리나라 여성운동, 청소년운동, 중·고등학생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남성 중심 사회가 규정한 여성다움이란 남성의 관점에서 구성된 여성성이다. '여학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화장으로 하얗게 만든 얼굴과 빨간 입술, 긴 생머리, 너무나 타이트하여 팔을 올릴 수 없는 상의 교복과 너무 짧고 폭이 좁아 걷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 싶은 치마이다. 화장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의 주된 이유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물티슈로 직접 여학생의 얼굴을 닦아내거나 화장품을 압수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지금도 그런 학교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여학생들의 화장은 대세가 되어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장을 지도하지 않더라도 많은 교사들이 화장을 싫어한다. 개성이 없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피부에 좋지 않다 등의 이유를 들며 10대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이쁘다고 하면서 화장을 하지 말도록 유도하지만 결국이 여학생의 미의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에 교사들의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 싶다.

화장을 비롯한 교복에 대한 단속은 여학생의 섹슈얼리티 통제와 연결되어 있다. 비청소년 여성과 구별이 되지 않는 외모는 10대 여성을 위협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섹슈얼리티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깔려 있다. 여학생은 성적으로 순수해야 하며 일체의 성적인 행위-눈웃음, 애교, 성적 매력 드러내기-등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며 외모를 꾸미는 아이들은 아마도 성적으로 순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도 있다. 그런데 교사들이 그렇게 단속을 해도 멈추지 않았던 화장을 스스로 멈추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학생 중 일부는 화장을 멈추고 긴 생머리를 자르고 더 나아가서는 브래지어를 벗고 있다. 세계를 다시 보는 인식의 페미니즘적 전환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구성하는 탈코르셋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첫 걸음은 남성 중심 사회가 정해준 여성이라는 정체성, 여성성을 의심하는 것이며 여성성 수행을 중단하는 것이다. 여성의 몸으로 규정되고 사회적으로 기대된 몸의 부착물을 벗어내고 여성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조립되고 만들어진 몸에서 벗어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탈코르셋운동은 자신의 몸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며 정신과 몸의 합일을 지향하기 위한 과정이며 몸을 재구성함으로써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미러링은 권력관계의 언어적 전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성혐오라는 원본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즉 여성혐오가 있어야 그것의 패러디인 미러링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러링의 방식은 여성혐오 자체를 해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혐오의 확대는 현실의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는 강력한 대항 도구가 되기 어렵다. 지금 여학생들의 스쿨미투는 미러링을 넘어 남성 중심 사회의 본질을 공격하고 민낯을 온 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교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성희롱 발언들이 모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교사와 여학생의 관계에서 성별 권력이 우선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교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3월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출처 : <동아일보>. 2018년 11월 5일.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은 남성교사들에게는 학생 집단 중 여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비단 교사들만 그런 것인가? 아니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모든 여성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권력을 갖더라도 ‘여성’이라는 기표 하나로 인식될 뿐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고발과 폭로에도 성찰과 반성, 사과라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여전히 가해자의 안녕과 미래를 우선하는 남성연대가 강고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스쿨미투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다. 앞선 자의 공론화는 뒤에 서있는 자에게 용기이며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점점 이야기는 모아지고 있다. 개별 학교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교에 성희롱, 성폭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 제도, 정책의 변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와 투쟁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럼 점에서 지난 11월 3일 개최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는 역사적이다. 탈코르셋운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의지라면 스쿨미투는 학교와 교육의 페미니즘적 전환을 위한 여학생 주체들의 운동이다.



## 6. 나가며 - 학교와 교사, 교육당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세상 어디에도 성평등이 실현된 국가, 조직, 공동체는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가해자 혹은 피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는 성차별을 전제로 유지되는 남성 중심 사회이며 폭력은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들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피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곁에 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여학생들의 인식의 전환이 대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도 교사 사회, 교육당국의 성찰과 변화는 거의 없어 보인다.

교사들 중 일부는 학업 성취를 높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자신과 다른 학생의 입시에 방해가 될 것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단속과 통제를 가한다. 이 과정에서 손이나 지시봉 등으로

학생의 신체를 건드리는 교사들이 있다. 외모를 자본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동료 교사나 학생을 평가한다. 때로는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목적으로 외모 비하를 한다. 수업 시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을 학습할 때 외우기 쉽게 한다는 이유로 성적 비유가 활용되기도 한다. 학생들이 성차별, 성희롱 언행을 문제 제기하면 교사들은 이해를 잘 못하거나 심지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성’에 대한 편협하고 차별적인 인식, 여학생의 섹슈얼리티 통제에 대한 강박은 성희롱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학생들 스스로 단속하라고 가르치고 교사가 나서서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난다.

교사들은 ‘성’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토론을 해 본 적도 없다. 교원 양성과정, 연수에서도 ‘성’은 다뤄지지 않는다. 교사들이 ‘성’을 배울 기회가 없다. 교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기존의 성별 이분법에 근거하여 여학생들에게 조신할 것을 강요하고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에 맞지 않는 여학생들을 모욕하며 성적으로 수치심을 줌으로써 여성성을 강요하고 있다. 성을 희화화하거나 웃음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

건국 이래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처럼 절박하고 광범위하게 드러난 적이 없음에도 교육 당국의 움직임은 여전히 ‘사안 해결’ 중심이다. 최근에는 스쿨미투 공론화 학생에 대한 색출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의 2차 가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교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이를 해결할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페미니즘 교육의 전면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이 절실하다. ‘성’에 대해서 여학생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인식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진보적이다. 학생들의 언어와 문제 제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교사나 관리자가 얼마나 있을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십수 년 동안 받았지만 교사나 관리자들도 한 번도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나면 덮거나 쫓아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인식 속에서 페미니즘은 여성들 중 일부의 주장이며 뭔가 골치 아픈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있다. 여성들은 여성이라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더 이상 감수하지 않는다. 여학생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 집단을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 집단으로 지목

하고 있다. 이제는 교사가 생각할 때이다.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멈추고 걸어온 길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먼저 구하여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보인다. 지금은 살펴야 할 때이다. 성찰은 진심 어린 사과로 이어져야 하고 성평등한 교육의 길 찾기로 나아가야 한다.

글을 쓴 **김성애**는

페미니즘을 늦게 알게 된 것이 인생의 큰 아쉬움이라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교사이며, 페미니즘 교육의 전면화와 교육노동운동의 페미니즘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여성의 일상 활동 모두가 노동이며 생산이라 생각하여 임신, 출산, 양육, 돌봄, 가사 노동을 가치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활동가이기도 하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YWCA Y-틴 위원회 위원



### 1. 십대여성 성매매와 사이버 환경

한국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범죄 소식에 이제 놀라움도 식상해질 지경이다. 성범죄는 특정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연령, 계급, 학력, 직업, 지역 등 여성을 구별하는 다양한 범주, 그 어느 것에도 예외는 없다. 심지어 여성에 대한 성매매는 폭력이라 여겨지지도 않는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성매매는 그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권 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게 하며, 돈이나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성을 살 수 있다는 가정을 상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권력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다. 성매매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다. 어떤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성적 도구

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여성들이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도 일상화되는 것이다.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중요도에서 밀리는 주제가 있다. 다음 아님 십대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이다. 십대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권력으로 작동하는 연령이라는 범주에서 약자다. 또한 이들은 사회, 경제, 젠더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십대 소녀들은 성인들이 만든 규율에 의해서 지도되지만, 성적 행위에서만은 성인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성인을 리드한다고 여겨진다. 십대 여성들이 성인들의 성적 욕망에 소비되고 이용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똑같이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제 해결에서도 십대 여성들의 자발성 여부가 핵심인 것처럼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IT기술이 날로 진보하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더욱더 많아지는 현실은 십대 여성을 돈으로 사서 성적으로 이용하는 '성매수 범죄'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십대 여성들에게 자발/강제라는 도식을 통해 피해자를 구분하겠다는 의식과 정책은, 연령대가 더 낮아지며 점점 확산돼 있는 십대여성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 글<sup>1)</sup>을 통해 필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사이버 환경이 얼마나 손쉽게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리고 나아가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 및 법률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1) 이 글은 2018년 8월 2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의 한국 발제문을 주제에 맞춰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조장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개인TV 방송의 특징<sup>2)</sup>

### 1) 채팅 어플리케이션 특징

#### ① 익명성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표기)'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가입의 절차 없이 닉네임/성별/나이/지역을 임의로 설정한 후 바로 입장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익명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스마트폰 번호와도 전혀 상관없이 닉네임만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익명성은 채팅과 채팅을 통한 만남의 위험성을 높인다. 또한 성별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은 성매수 알선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둔갑하여 채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매우 많다.

#### ② 성인 인증 절차

현재 존재하는 채팅 앱 중에 성매매 정황이 활발히 보이는 앱의 대부분은 성인 인증 절차가 없다. 대신 나이 설정을 20세 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앱들이 있지만 닉네임에 '15', '열7곱', '고등학생' 등의 닉네임으로 아동·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성매수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대화 내용 저장 기능

채팅 앱이 성구매/알선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특징은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대화 도중 일방이 채팅방을 나가는 순간 모든 대화 내용이 삭제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대화창을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성구매/알선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유용한 특징이 된다.

2) 이 부분은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도매상담팀에서 작성하였다.



내용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초등학교생이 채팅 앱을 이용하는 현상도 발견하게 되는데, 초등학교생이 '노예' 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팅을 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어린 아기를 성적 대상으로 구하는 것도 볼 수 있다.

## ② 혼혈 여성

최근 '혼혈' 여성을 찾는 남성 성 매수자를 앱 상에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혼혈'이라는 특징을 강조하는 여성 이용자들이 있다. '혼혈' 여성을 원하는 남성들이 보이는 것은 좀 더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성매매 정황이 파악되는 SNS

### ①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스폰,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파악된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로 계정 이름을 설정하여 사용 중이고, 실제 성매매 업소 업주들도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업소 홍보를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채팅 앱 홍보를 보고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②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섹스타그램', '오프'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음란물 혹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게시한다. 보통 자위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사람들은 개인 이용자인 것으로 추측되며, 게시자에게 DM(인스타그램 내 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냈다는 댓글이 많은 것으로 보아 성매매 제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③ 트위터

'조건만남' 및 유사 성행위(자위 영상 및 사진 판매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성매

매로 유인하는 글이 많이 게시되고 있다.

## 7) 섹시방송

인터넷 검색창에 '섹시방송'이라고 검색하면 다수의 사이트들이 검색된다. 성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가입부터 방송 시청까지 모두 무료이다. 인터넷 방송매체 아프리카TV에서 영구 활동 정지를 당한 이른바 '섹시 BJ'들이 섹시방송으로 옮겨가고 있다. 섹시방송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시청할 수 있다.

섹시 BJ들이 노출 의상을 입는 이유는, 의상이 곧 시청자 수와 별풍선(섹시 방송마다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시청자들이 BJ에게 현금으로 환급 가능한 돈을 쓰는 것을 별풍선이라고 칭한다) 수익에 연계가 된다.

시청자들은 갈수록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 방송 규제가 없는 섹시방송에서 높은 수위의 방송들을 진행한다. 그중에는 선결제를 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방송도 있는데, 그런 방송에서는 더 수위가 높은 방송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이 24시간 진행되고, 직장인 남성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9시 이후부터 이른바 섹시 BJ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다.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별풍선을 쓰는 것에 대해 BJ가 해당 아이디를 직접 언급하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이용해 성매수자들이 욕구를 채우고 있다.

## 3.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

### 1) 성폭력과 성매매의 모호한 경계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애매하여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나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에서는 성폭력과 성매매를 구분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의 경우 도움 받기 어렵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성폭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단속

과정에 걸리지 않았다면 신고하기도 어렵지만, 자발적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점에서 2차 피해 등이 심각하다.

## 2)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매매를 자발적인 것으로 규정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의 경우 90% 이상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이나 앱에 접속하여 스스로 방을 만들고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자발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를 조장, 알선하고 있다는 사이트나 채팅 앱 등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전제는 성매매의 모든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만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알선업자나 또래 포주들이 디지털 매체를 이용,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인 성매수자들에게 알선하는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 3)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의 후견인에 의해 법적 권리가 행사되고 보호된다. 전적으로 부모 등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부모,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줬다”라는 협박은 가장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보통 어떤 범죄적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알선업자나 성매수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어, 성병이나 임신 등의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더욱이 혼자서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을 찾아갔을 때 생기는 2차 피해(낙인, 비난 등)에 대한 걱정으로 가출을 선택하거나 알선업자, 성매수자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알선업자나 성매수자들은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심리를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마주치는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주변에 알려줬다는 협박과 너도 처벌받는다는 식의 협박을 받고 있었다.

## 4) 그루밍 수법

성매수 범죄자나 알선업자들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방법은 친근한 말투, 칭찬하기, 선물 사주기, 용돈 주기, 밥같이 먹기, 영화같이 보기, 나쁜 짓 허용하기, 놀러 가기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길들여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장악한 후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연인 관계로 착각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된다.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더라도 신고하기를 꺼리고, 단속에 걸려서도 이들의 존재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매수 범죄자나 알선업자들은 초기 길들이는 과정에서의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등을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연인 관계의 증거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 5) 피해의 심각성

아동·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성장기여서 흔히 불안한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놓여 있다. 즉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멋지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결과나 미래를 예상하며 행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다수의 성매수자들과의 성적 행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힌다. 많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심각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잦은 자살 시도, 알코올중독, 정신분열 등의 증세를 보인다. 특히 돈을 받으면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는 성매수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면서, 정상적인 성행위 자체를 폭력적으로 인지하거나 폭력이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등 이후 정상적인 관계성을 크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 6) 성매수자들에게만 안전한 스마트폰 채팅 앱

완전한 익명성과 대화 내용의 휘발성, 짧은 기록 저장 기간 등 성매수자의 성취 범죄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채팅 앱은 알선업자/성매수자들에게는 너무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채팅 앱은 특성상 미성년자가 다수 이용하는 채널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매수자들은 성인 성매매 직업여성인 일반 소녀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소녀들은 협박에 취약하고 결코 혼

자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이용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채팅 앱은 알선/성매수자들에게 각광받는 매체라 아니할 수 없다. 2017년 6월 현직 경찰이 스마트폰 앱으로 미성년자를 성매수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은 스마트폰 앱이 성매수자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게 생각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4. 사례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 피해 지원시스템 및 법률의 문제점

##### 1) 사건 배경

2014년 6월경, 만13세를 2개월 지난 한 청소년 A가 모친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놀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진 이 청소년은 가출을 결심하고 스마트폰의 ‘친구OO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을 만났다.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를 당했던 A는 갈 곳이 없어 그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갔고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고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던 A는 더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친구를 찾았다. 그 후 6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거의 1주일이 지난 후 A를 찾았지만 A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A를 데리고 서울의 한 아동센터에 성폭력으로 신고한 후 국선 변호사 입회하에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도록 하였다. A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극도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A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A는 보호받아야 할 정신병원에서조차 남성 보호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보호사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은 2종류로 분류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가출 후 성폭행당한 사건은 A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개설했고, 떡볶이나 치킨 등을 얻어먹었다 하여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어 버렸다. 이에 따라 초

#### 2) 사건 경과

2014. 7	해와나무 상담소(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지원단)를 통해 사건 의뢰됨.
2014. 7	당시 피해자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어서 외출 시, 방문 상담함 형사 사건들이 진행 중임을 파악하였고, 내담자는 사건 후유증으로 사건 직후인 6월부터 상담 의뢰된 이후인 10월까지도 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모친 역시 사건으로 인해 생업을 중단하며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2014. 12	6명의 가해자(A, B, C, D, E, F) 중 12월 A와 B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됨을 알게 되어 본 센터의 법률 지원단을 통해 항고장 제출, 재기 수사 결정됨. 그러나 A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됨. 6명의 가해자 형사 공판 종료 후 본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모친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생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등의 보상을 위해 각 건마다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서순성, 기획광, 김병희, 배진수, 배수진, 최석봉 변호사)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2015. 2	가해자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 지원단 최석봉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일부 승소함(서울동부지법).
2015. 4	가해자 D: 징역 10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6 본 센터 법률 지원단 김병희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5. 11 승소함(서울서부지법).
2015. 5	가해자 E: 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선고됨. 선고 당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으로 생긴 공백으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되어 판결 결과를 알지 못해 항소를 하지 못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 지원단 배진수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8 원고 패소함(서울서부지법).
2015. 6	가해자 F: 벌금 1,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검사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본 센터 법률 지원단 배수진 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2017. 6. 원고 일부 승소함.
2015. 9	가해자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피고인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2015. 11 본 센터 법률 지원단장 서순성 변호사, 기획광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6. 원고 패소함 항소하여 2017. 1 일부 승소함.
2016. 5	같은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C와 E의 판결이 재판부마다 상이하여 패소한 E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제기 및 항소장을 2016. 5. 제출함. 2016. 10. 일부 승소함.
2017. 12 ~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던 A의 수사 재기되어 현재까지 형사소송 진행 중임. 본 센터 변호인 측에서 성폭력 범죄로 재기소하기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 성폭력 사건을 지원했던 아동센터에서는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A의 심리상담을 하던 선생님의 의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연계되었다.

12월이 되어 사건은 하나씩 결정이 났다. 총 6명의 가해 남성이 특정되어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각각의 사건이 모두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12월까지 3명의 가해자 중 1명만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로 처리되었다.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냈을 뿐인 A를 강제가 아니라 하여 성폭력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 하여 성매매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항고하려 했지만, 국선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성폭력사건이 아니라하여 더 이상 변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 지원단에서 이 사건을 받아 무혐의로 결정된 가해자 2인에 대해 항고를 하였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 3) 드러난 문제점

#### ① 편의적 수사, 성의 없는 수사, 전문성 없는 수사

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가 됐는가?

- ▶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만 13세였고 경계성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가출 1주일 동안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지 않고 가해자 개인의 사건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 사건으로 수사
- ▶ 연령 및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단순한 적용
- ▶ 스마트폰 앱에 방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인지(대상 청소년 개념 적용)
- ▶ 떡볶이, 치킨 등을 얻어먹고, 모텔 방비를 지원받았다는 점 등에서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
- ▶ 가해자가 피해자의 돈까지 뺏어 모텔비를 보태서 내고, 성폭력 후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기소도 하지 않음

#### ②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초기 수사지원을 했던 아동센터에서 모든 지원을 끊음

- ▶ 아동·청소년에게도 성폭력과 성매수 범죄를 구분 적용하는 지원 시스템의 문제

#### ③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국선변호인 제도

#### ④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에 대한 전문 지원 시스템 부재

- ▶ 상담소, 검정청 등에 전문 부서 부재 등

#### ⑤ 너무 약한 처벌 수위

- ▶ 아동·청소년이 문제라는 인식과 성인 성매수자의 존재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동·청소년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자세
- ▶ 벌금, 집행유예 등 범죄를 위축시키지 못하는 처벌 수위

#### ⑥ 형사상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판결

- ▶ 피해 아동이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자발적 성매매를 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
- ▶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은 ‘피해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
- ▶ 성매수자가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사회적 법익’을 위해서지 개인 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형사상 처벌을 받은 성매수자는 피해 아동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 5. 사이버 성착취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대책<sup>3)</sup>

### 1) 사이버 성착취 환경 대응방안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데에 있어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인터넷 카페/채팅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 수단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IT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성매매 유인 환경을 인터넷 채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 소통형 영상 채팅, 개인 방송 형식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제정될 법률은 우선 채팅 사이트나 채팅(영상) 앱, 개인 방송 등의 운영자가 성매매 정보의 알선과 성매매 조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성매매 알선 세력이라는 전제가 분명해야 하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향후 사이버상 성매매 시장은 현실세계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그 대상은 사이버 환경에 쉽게 반응하는 아동·청소년이 될 수 있어 그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IT 기술적 진보와 함께 사이버상에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 가능한 전문 영역을 포함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발전시켜야 한다. 단기 간의 사업적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기구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

3) 조진경 외,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한 법령과 제재수단을 병행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그루밍법’<sup>4)</sup>과 네덜란드의 ‘10살 가상소녀 스위트 프로젝트’<sup>5)</sup>는 시사점이 크다. 또한 신고 의무자를 채팅 사이트나 앱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방송 통신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KT나 SK 등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인 성매매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점점 확장시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알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이라고 보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리하여 보호처분하고 있어 성구매자에게 흔히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협박과 아동·청소년들이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동의 여부를 떠나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형태의 법률로 개정되어야 하며, 처벌 또한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이 무서워서라도 범의를 상실시키게 하는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만 13세 이하로 두지 말고 피해 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행해져야 한다.

4) 2013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성인이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은오프라인에 상관 없이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네덜란드 인권단체 ‘인간의 대지(Terre des Hommes)’는 ‘스위티’라는 이름의 10살짜리 필리핀 소녀를 가상 인물로 만들어 화상채팅 서비스를 하고 그것을 구매하는 상황들에 대한 상세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아동 성착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글을 쓴 **조진경**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와 한신대 신학대학원(M. Div)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YWCA연합회 Y-틴 위원회 위원,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 계기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회복과 자립자활 등 여성들의 성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현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청년여성에게 지역은 대안이 될 수 없나

**김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



### 1. 들어가며

내가 사는 충남지역에 청년여성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필자는 충남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뭘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충남지역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풀어놓다 보면 충남지역의 청년여성의 삶과 맞닿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글을 쓰기로 하였다.

여성들은 살면서 어디에 살고 있고 그곳에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생애 중 청년기에는 주로 어디에 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는 어떤 여성들이 살고 그녀들은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청년기 여성들이 지방을 떠나 주로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청년여성을 접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를 촉진해 지방에는 조만간 인구가 없는 마을이 나올 거라는 염려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역의 청년여성들이 떠난 자리엔 또 다른 청년여성들이 이주해와 지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어 세간의 염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

여성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자신의 인적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이거나 결혼 때문이다. 특히 결혼은 여성들이 자기 생활의 근거지를 포기하고 배우자의 거처로 이주해감으로써 결혼하기 전 지역을 중심으로 맺은 네트워크와 결별하게 만든다. 필자도 결혼하면서 남편을 따라 충남지역에 이주해왔고 이는 필자가 결혼하기 전에 지역을 중심으로 맺었던 관계들을 끊게 만들었다.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어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만 여성이 남편의 생활 근거지로 이주하는 관행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 지역의 청년여성이 결혼 후 지역을 떠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이슈들이 연구되고 NGO들도 많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국내 이주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과 서울 등 대도시는 여성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길래 청년기 여성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포기하고 좀 더 규모가 크고 잘 사는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걸까?

## 2. 젊은 여성들이 왜 지역을 떠나는가

학생들 대부분은 초중고까지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다닐 때부터 가능하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한다.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가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여파로 딸 아들 구분 않고 자식에 대한 교육열을 불태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선 자식의 성별을 떠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 여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가급적 서울과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고 그 지역에 정착하려고 할 것이다. 1980년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필자의 동창들을 살펴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서울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다. 직장을 서울에서 구하니까 지방에 내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충남지역에는 대학교가 많은데 특히 충남의 천안시와 아산시에는 대학들이 많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지하철 1호선이 아산까지 오므로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이 천안과 아산지역 대학교에 많이 다닌다. 따라서 이 지역 대학생들은 학교에 재학 중일 때만 이 지역에 머물고 졸업하면 자신들이 살던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 충남지역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지역 시민단체와 교류도 거의 없다. 1980년대 필자가 대학에 다닐 때는 지역 문제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해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2000년대 이후 이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다. 이것은 대학교 자체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교육부도 대학교 평가항목에 대학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모색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에는 환경문제와 복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들이 많은데 지역의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대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연대할 수 있고 졸업 이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이 졸업하고도 지방의 기업이나 시민단체에 취업한다면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서울과 수도권 인구밀도를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출신 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졸업 후 다시 지역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이 문제는 지역에서 지역 출신 또는 지역 대학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지역 내 기업들이 청년들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충남지역에 세종시가 들어서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충남 홍성으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도 충남으로 많이 이전해 지역의 인재 고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런데 충남지역 지자체에서 뽑은 공무원 등 관

젊은 일자리에 선정된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학력과 스펙이 지방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보다는 낫다고 보는 인사권자들에게 의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들은 남성으로 대표되면서 지방대 출신 청년여성들은 취업시 청년 남성들에게 밀리고 여성 할당으로 채용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출신 여성들에게 밀려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 몰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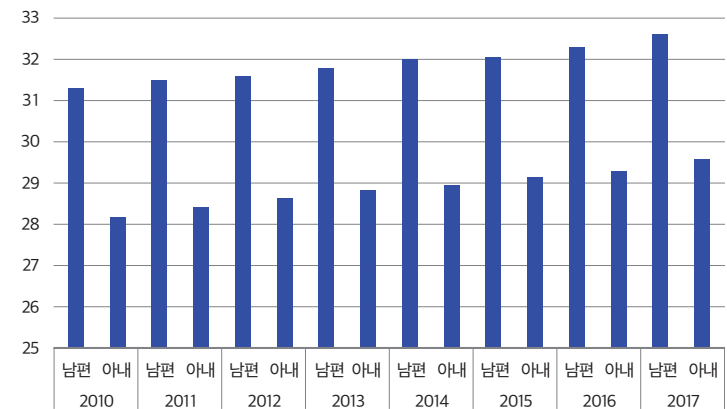
청년기 여성들이 지방에 살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의 대표'는 남자라는 가부장적 가치관이다. 특히 충남지역의 보수적인 정서는 청년기 여성들이 자신의 자립적인 삶보다는 가족을 위한 삶을 우위에 두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도 공통된 문제이나 충남이 예부터 효와 충을 강조하거나 농촌이 많아 가부장적 정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충남의 성평등지수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하위그룹으로 그 순위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점은 충남의 보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해 지역을 대표하는 남성들보다 학력이 높았지만 지방에 사는 기혼여성의 학력은 별 쓸모가 없었다. 젠더가 학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성들은 직장에서 고용불안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고용불안을 겪는 여성들이 자신보다 안정된 일자리인 정규직 남성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과 아산지역에는 현대차와 삼성 등 대기업이 있고 관련한 하청회사들이 많아 정규직 남성 일자리가 많다. 이들의 부인들은 맞벌이가 많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누린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한 커플이 천안과 아산지역의 현대차나 삼성에 발령이 난 경우 이들의 부인들은 과거 자신이 다니던 일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지역에 내려와 살아야 하므로 지역의 삶에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 남편을 따라 지방에 내려온 부인들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지만 지방에는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 만약 이 여성들이 구직활동에 나선다면 이들은 기혼여성들로 학력도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에 채용되기 쉽다. 이들 여성을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보질 않고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만 보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면 그 부인은 집에서 아이들 육아와 가사를 맡아야 한다고 보는 가부장적

통념이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청년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결혼해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잃기보다는 결혼을 늦추고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데에는 결혼이 온전한 여성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여성의 초혼 연령을 보면 2010년 28.15세에서 2017년 29.59세로 높아졌고, 일반가구 중 2030세대의 1인 가구가 2017년에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충청남도 연도별 초혼연령



자료 : 통계청

[표 1] 충청남도 2030 1인가구 비율

(단위 : 가구)

	계	남자	여자
일반가구	834,986		
2030 1인 가구	86,159	55,472	30,687
백분율	10%	7%	4%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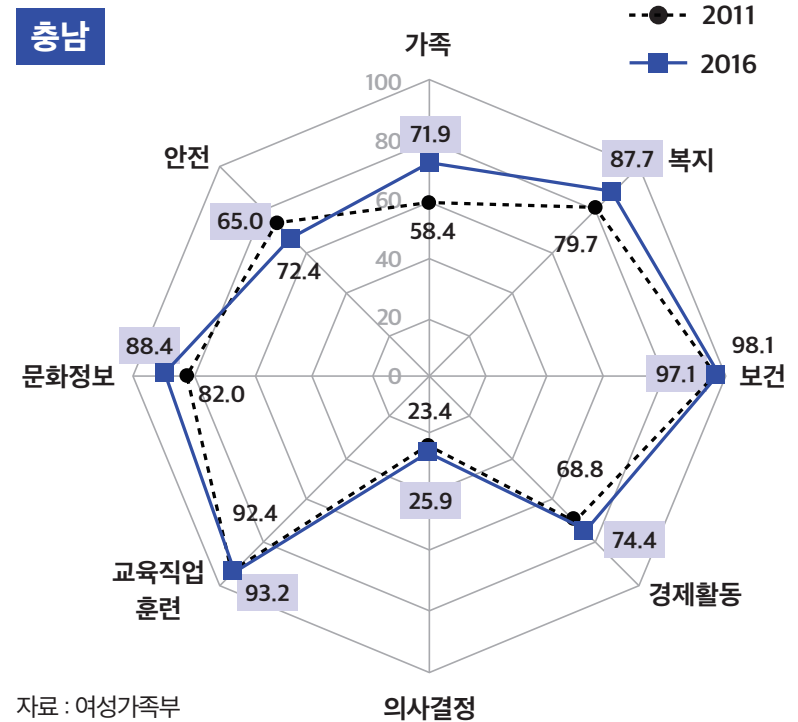
### 3. 청년여성이 지역에 자리잡고 살려면

충남지역에 사는 청년여성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의 성평등지수가 높아져야 한다.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가부장적인 환경에 여성들이 처하게 된다면 여성들의 지역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충남의 ○○여상에서 스쿨미투운동이 일어났다.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 잘 낳고 시집 잘 가려면 이빠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학생들이 폭로한 것이다. 여자상업고등학교는 인문고와 달리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남들보다 일찍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에게 자립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여성들은 아이 잘 낳고 시집 잘 가면 된다는 식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발언을 하여,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SNS에 고발하면서 스쿨미투로 번지게 된 것이다. 학생들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은 충남의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걸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다른 학교에서도 흔한 일이라 했다. 필자는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단체에서 주최한 스쿨미투지지 캠페인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충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높다는 것은 지역 성평등지수 순위에서 매년 하위그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충남지역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크게 순위가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안전, 경제활동 분야로 여성의 자립성을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항목에서 지수가 낮아 문제가 심각하다.

천안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에 걸려오는 학생과 청년여성들의 상담전화 분석해보면 여성들이 공적 영역인 학교와 직장에서 경험하는 성희롱, 성적 불안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여성이 공부하거나 일하는 직장,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적 영역의 주연은 남성이고 여성은 조연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이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은 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남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나 지역적으로 충남처럼 가부장성이 강하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그림 2] 충남지역 성평등지수(2011, 2016)



자료 : 여성가족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여성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진입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지속되도록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짜여야 하는데 충남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

충남도지사에 의한 수행비서 성폭력사건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성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의 표를 보면 충남에서는 여성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남성과 비교할 때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지역에 살면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지역사회에서는 타 지역에 가지 않고 지역에 남은 청년 또는 타 지역에서 충남에 들어와 사는 청년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표 2]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남녀 인식차이

지역	전북	전남	광주	대구	인천	경남	부산	경북	울산	세종	제주	강원	경기	충남	서울	충북
인식차	0.1	2.0	2.6	3.3	3.8	3.9	4.3	4.3	4.6	5.1	5.5	5.9	6.0	6.8	7.5	8.5

자료 : 여성가족부

발휘하게 하기 위한 공간 제공, 청년을 고용하는 시민단체나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이 충남에서도 지급되어야 한다. 충남의 시군 지역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고,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여 노인세대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남의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다.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욕구조사부터 해야 한다. 청년여성에게는 이러한 지원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북유럽 국가 중 한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농민 지원금이 여성들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예산 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는데, 이후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지원금을 주었고 그 결과 여성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성 중에도 농민이 있으므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가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보아 여성에게도 농민 지원금을 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촌에 여성들이 농사짓고 살면서 농촌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여성들이 농촌에 살면서 농민 지원금을 받아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충남지역 농촌에도 청년여성들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 지원금 이외에도 각종 보조금이 남성을 경제주체로 간주하고 여성은 남성이 벌어들여주는 수입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로 보는 가부장적 인식이 청년여성들을 지역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여성을 자립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비혼인 청년여성들을 도시로 이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 여성이 떠난 농촌 마을은 노인들만 남아 황폐해지고 결국엔 인구감소로 이어져 마을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 4. 지역을 바꿔나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강남역 살인사건과 여성에 대한 몰카 촬영 사건 등으로 불거진 1020세대 여성들의 시위 규모가 기성세대가 놀랄 만큼 커지고 있다. 이들은 미러링, 낙태 합법화 등 기존 여성운동계가 해내지 못한 과제들을 거침없이 외치고 있다. 지방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필자처럼 많은 활동가들이 볼 때 부럽기도 하고 한편 우리들이 하지 못한 여성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들에게 고맙기도 하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1020페미니스트들과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타 지역 여성의 전화에서는 탈코르셋 운동에 동참하는 등 발 빠르게 이슈 전환을 통해 이들과 만나는 접점을 찾고 있어 충남지역에서도 영영페미니스트를 만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 문제는 청년여성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에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청년여성보다 젊은 영영페미니스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여성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충남지역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를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갔던 곳에서 필자는 충남학생인권연합회 활동가를 만났는데 11월 3일 학생의 날에 학생인권행사 중 천안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 예방 부스를 운영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행사에는 학생들로 꾸러진 젠더모임도 참여한다고 했다. 드디어 영영페미니스트들이 지역에서 기성세대인 여성운동가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고 이들과 만나기를 원했던 필자는 흔쾌히 이들과 손을 맞잡았다.

필자가 충남지역에서 여성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여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남은 청년여성들에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와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고통 등 이중의 고통을 겪어온 이들에게 기성세대는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성세대인 필자도 겪은 지방의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환경들을 성평등적인 환경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좋다고 느끼게 사회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20대 후반에 서울에서 충남으로 이사와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된 여성운동가인 필자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나름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여성운동가들의 수가 매우 많았지만 충남지역에는 필자가 내려올 즈음엔 전업으로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충남지역에도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남은 청년여성들과 충남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청년여성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일군 성과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방에 남은 청년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청년, 청년여성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펼치는 저출산 대책보다 훨씬 성과가 날 수 있는 확실한 지역을 살리는 대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5. 나가며

끝으로 청년여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충남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인종이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단지 여성이거나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성정체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점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청년여성들이 당당하게 지역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충남에서는 작년에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측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할 수 없고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여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기까지 했다. 기성세대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권조례마저 폐지하지는 주장은 청년여성들이 바라볼 때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여성에게도 투영되어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여성, 결혼 않고 혼자 사는 여성, 나이 어린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충남

지역과 같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충남인권조례와 시군 단위의 인권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권조례가 성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여 청년여성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젊은 기상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 청년들에게 무작정 고생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청년여성들에게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이들에게 고생해보라는 말은 더욱 하기 힘들다. 사회적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일은 기성세대가 할 몫이다. 필자도 이 글을 쓰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년여성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만나면 따뜻한 격려라도 한마디 건네고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글을 쓴 김김혜영은

초중고와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고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충남 천안에 내려와 살기 시작하였다. 2002년 천안여성의전화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천안시 두정동에 들어서는 화상경마장 건립 저지운동을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펼쳐 1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천안시로 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이끌어내었다. 2007년에 여성학 석사과정 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는 사회학 박사논문 준비 하고 있고 현재 천안여성의 전화 대표와 천안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 지역여성운동

YWCA 지역여성운동, 왜, 어떻게 해왔는가?

곽지영

YWCA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해야 하는가?

이숙진

# YWCA 지역여성운동, 왜, 어떻게 해왔는가? <sup>1)</sup>

## 곽지영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YWCA는 한국 여성단체 중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 근현대사를 아우르며 90여 년의 여성운동의 역사를 이어왔고, 공동체적 이념에 기초하여 시대의 약자들을 치유하고 보살피는 ‘실천적 정의운동’을 실천해 왔다. 최근 들어 ‘지역’과 ‘여성’이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지역의 분권과 자치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지방정부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그 정치에 지역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얼마나 자신들의 생활세계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실현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역 생활세계의 이해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성들이 자치의 주체로서 의식을 키우고 자신들의 생활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지역 자치에 참여할 것인가가 핵심적 문제로 제기된다.

1) 이 글은 『YWCA지역여성운동 연구』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YWCA는 2018~2019년 운동 정책의 키워드로서 ‘젠더’와 ‘지역’을 설정하고 각 YWCA가 자기 지역의 구체적 요구를 수렴하여 운동화하며 그 운동에 젠더관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것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젠더’와 ‘지역’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 정치에 참여하여 생활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역여성운동이라 정의할 때, 전국 52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여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YWCA가 지역의 대표적 여성운동단체로서 YWCA가 전개해온 지역여성운동의 현재와 의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찾는 길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YWCA가 전개하는 지역여성운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여성운동의 흐름을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우리의 운동의 성격은 무엇인가? 왜 지역여성운동인가? 지역여성운동주체로서의 YWCA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YWCA 지역운동이 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YWCA에서 논의되거나 발간된 지역여성운동 관련한 자료와 문헌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YWCA 운동영역별 포커스 그룹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 1. 지역, 여성운동, 지역여성운동의 개념

**지역** : 지역은 중앙집중화의 영향으로 중앙에 비해 불평등하게 주변화되어 있으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포섭과 통제, 그리고 그에 대한 순응과 저항이 동시에 발생이 일상화되는 삶, 생활의 터전으로서 사회문제를 생활의 문제로 직접 깨달을 수 있음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정치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지역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담론들의 각축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운동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지역주민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주체가 되어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전체사회의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성운동:** 여성운동은 여성주의를 철학으로 한다. 그러나 여성주의에 대한 논의는 ‘여성주의들’로 다원화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하나로 정의되는 여성주의 보다는 각 여성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이해, 욕구로부터 다양한 여성주의들이 존재할 수 있다.<sup>2)</sup> 여성운동은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착취 등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운동이다.

**지역여성운동:** 지역여성운동은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으로 지역사회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삶과 미시권력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화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운동’이다.

## 2. 언론을 통해서 본 YWCA지역여성운동

YWCA가 전개한 다양한 활동이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 위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를 이용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신문기사의 선정은 지역별 종합일간지 중 언론재단 기사검색서비스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이용하여 27개 지역종합지<sup>3)</sup>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

2) 탈식민주주의, 탈근대적 여성주의자들은 ‘서구, 백인, 중산층여성들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 유럽 중심의 페미니즘이 제3세계 여성들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서구페미니즘의 식민주의라고 비판한다(모한티, 2005:22). 서구여성들과 달리 제3세계여성들의 현실은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구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단일한 정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성들 내부의 차이와 맥락이 존재하며 여성주의담론은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3) 27개 지역종합지(가나다순) :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사의 선정은 ‘YWCA’를 검색 키워드로 기사제목과 내용에 키워드가 포함되는 기사로 하여 199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게재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은 지역여성단체의 지부 설립 등이 본격화된 1990년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되는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YWCA가 지역에서 전개한 프로그램과 활동유형의 범주는 크게 여성주의/성평등운동, 사회서비스/돌봄운동, YWCA 내부 여성리더십 활동, 지역이슈의 4가지와 ‘안전’관련 유형, 이들 범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인 ‘기타’를 추가하여 총 6가지의 프로그램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1> 분석유목 : YWCA 활동과 프로그램 구분

구분	구분	활동예
여성주의/성평등(P1)	지역여성운동의 핵심가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쉼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운영, 성평등 운동 등
사회서비스/돌봄(P2)	지역사회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 활동	가사도우미, 간병사, 산후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운영
YWCA 내부 여성리더십(P3)	초기운동부터 지속되어 온 여성지도력 개발 훈련	지역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여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역이슈(P4)	지역사회 고유의 이슈 지역에 변화를 주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세월호 사건 및 지역이슈에 대해 회원Y가 전개한 캠페인, 서명 운동 등
안전(P5)	지역이슈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분야 이슈	오염된 지역환경을 살리는 운동, 자연보호 활동, 핵발전, 먹거리오염 등 문제에 관해 지역이슈
기타(P6)	P1~P5 이외	교육모집, 개인 및 단체 동향, 인사, 안내 등

YWCA가 지역에서 전개한 6개 분야별 프로그램과 활동유형의 범주에 대한 기사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안전(380건, 19.4%)’과 ‘지역이슈(382건, 19.5%)’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여성주의/성평등(342건, 17.5%)’, ‘사회서비스/돌봄운동(221건,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YWCA 내부 여성리더십’은 전체의 약 1.4% 정

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30.9%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기타 기사의 주요내용은 교육모집, 개인 및 단체 동향, 인사, 안내 등으로, YWCA가 지역사회의 주요 동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외 여성주의/성평등 운동, 사회서비스/돌봄 운동, 지역이슈는 유사한 비중의 기사 분포를 보였으며, 2000년대 들어 신문기사 빈도수가 3개 범주에서 모두 급증하고 있다.

신문기사 수 추이를 볼 때 2000년을 기점으로 회원Y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활용유형도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기존의 활동유형 외에 지역이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오염된 지역환경을 살리는 운동이나 핵발전 반대 및 먹거리 오염 등 안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기사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2> YWCA 활동과 프로그램별 기사수와 비중**

구분		90~94	95~99	00~05	06~09	10~14	15~18.8	총합계(건%)
여성주의 성평등	지역종합지	5	23	44	80	67	38	257(18.7%)
	중앙지	10	7	10	9	25	24	85(14.6%)
	소계							342(17.5%)
사회 서비스/ 돌봄	지역종합지	1	16	41	62	49	25	194(14.1%)
	중앙지	3	8	4	2	3	7	27(4.6%)
	소계							221(11.3%)
내부 여성 리더십	지역종합지	-	-	4	6	6	10	26(1.9%)
	중앙지	-	-	-	1	1	-	2(0.3%)
	소계							28(1.4%)
지역 이슈	지역종합지	7	21	55	56	54	62	255(18.5%)
	중앙지	22	7	18	18	37	25	127(21.9%)
	소계							382(19.5%)
안전	지역종합지	5	5	13	18	31	34	106(7.7%)
	중앙지	50	41	49	26	64	44	274(47.2%)
	소계							380(19.4%)
기타	지역종합지	9	18	87	177	205	42	538(39.1%)
	중앙지	13	6	1	3	21	22	66(11.4%)
	소계							604(30.9%)
총합계 1,957(100%, 지역종합지 1,376 + 중앙지 581)								

※ 합계란의 ( )는 분석 대상 총 기사 수에 대한 해당 기사 수의 비중

### 3. 전국대회 정책을 통해서 본 YWCA지역여성운동

한국YWCA 운동의 지향은 YWCA 목적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7차례 변경된 과정<sup>4)</sup>에서 만들어진 YWCA 목적문에는 설립 초기인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당시에 목적문 4개 항 중 두 번째 항에 ‘지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으로써, 운동의 현장이 되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지역’, 운동의 추상적 목적이자 조직의 구체적 형성 지침을 ‘지역’, ‘사회’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2~1940년** 1. 조선 각 기독교 청년회를 연합하는 기관을 작함. 2. 각 학교 및 도시 내와 타 계급의 조선인을 위한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 3. 연합위원으로 말미암아 발달된 청년회로 하여금 차 연합회를 통하여 만국여자기독교청년회동맹과 세계기독교학생동맹으로부터 연락케 함. 4. 다음 사업을 증진케 함. 가) 청년의 영지체 및 사교적 행복을 발달케 함. 나) 청년여자로 야소기독을 신앙케하여 생활의 원만과 인격의 개발을 기도하며 천국을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이어 개정된 **1950~1953년**의 목적문에는 3항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YWCA 운동이 지역 운동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운동임을 밝히고 있는데, 1,2항은 위와 같고, **3. 각 대학교, 각 도시 및 농촌 부인을 위하여 여자기독교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1954~1955년에는 현재와 같은 한 개의 개조식 문장으로 목적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이 목적문에서는 주체인 ‘젊은 여성’, ‘기독교인’을 강조하고, ‘공통된 이상’, ‘친선’,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게 함’이라는 목적적 행동을 구체화하여 나타내면서 지역이나 여성들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YWCA운동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1954~1955년** **젊은 여성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공통된 이상을 목표로 서로의 친선을 두**

4) 대한YWCA연합회(2006). 한국YWCA 80년사. pp.538-539.

텅게 함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게 하는 데 있음.

1956~1972년 목적문은 현재의 목적문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1973~1996년에 잠시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으로 되어 있던 적은 있었으나, 1997년 개정 이래 지금까지 YWCA목적문에서는 ‘젊은 여성들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고, 공간이나 대상으로서의 지역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기 생활’, ‘자기 삶’으로 보편적 실천의 장을 표현하면서, 실천의 결과이자 목적을 ‘평화’, ‘정의’로, 1997년 이후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으로 나타내고 있다.

**1997~현재**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회 전국대회가 개최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부제가 바뀌기는 했지만 13년간 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이 슬로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사랑공동체운동 민들레운동이 본격화되던 2006년에 지역사회 기반의 육아운동, 먹을거리운동 등이 추진되었고, 2009년까지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프로그램 중점이 채택되었다. 2011년부터는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청년리더십 개발’이라는 이슈 영역과 목적이 조합된 프로그램 중점이 채택되면서 하위 과제들에는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교육, 제도 개선,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2014년부터 탈핵과 성평등 운동이 강조되면서 ‘지역 에너지 절약과 생산 활동 및 연대’ 과제와, ‘성인지 정책 정착’과 ‘여성폭력예방’ 운동을 지역 기반으로 전개할 것을 채택하였다. 돌봄노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의 경우에도 두 개 지역을 선정, 시범 운영하는 형태로 지역에서의 운동화를 시도하였다. 2016~2017 운동 정책은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를’이

라는 주제 하에, 탈핵운동과 성평등운동을 4대 운동 중에서 2개를 특별히 중점운동으로 채택하고, 목표에도 두 영역에서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지향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즉, ‘탈핵 에너지 정책 전환과 에너지 자립 지역사회 만들기’,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한 사회 이루기(지역사회 성인지 거버넌스 구축)’ 등이 그것이다. 2018~2019 운동정책은 2016~2017 운동 정책의 기초를 이어 ‘탈핵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지역사회 만들기’,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지역’과 ‘여성’의 관점을 접목한 운동 과제들을 지역 실정과 목표에 맞게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 4. 월간『한국YWCA』회원Y 활동소식을 통해서 본 지역여성운동

52개 회원Y의 최근 5년간 월간지 『한국YWCA』에 실린 ‘회원활동소식’ 가운데 지역여성운동 범주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활동들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그 빈도수를 특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지역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활동, 프로그램 분석 결과

분류 기준	여성주의/성평등		사회서비스/돌봄 (가사, 산모, 간병, 아이돌봄)		YWCA 내부 여성리더십		이슈 (지역에서/지역의)		총계
	횟수	백분율(%)	횟수	백분율(%)	횟수	백분율(%)	횟수	백분율(%)	
2014	29	6.8	185	43.3	96	22.5	117	27.4	427
2015	25	8.0	174	55.4	96	30.6	19	6.1	314
2016	38	10.1	148	39.5	93	24.8	96	25.6	375
2017	52	13.1	161	40.7	100	25.3	83	21.0	396
총계	144	9.5	668	44.2	385	25.5	315	20.8	1,512

\*중복표시 있음

##### 1) 사회서비스 활동/돌봄운동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YWCA 월간에 소개된 회원 YWCA 활동 가운데

데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사회서비스’ 활동이었다. 2014년~2017년의 YWCA 활동 가운데 YWCA 지역여성운동에 해당하는 4개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은 2014년에 427회, 2015년 314회, 2016년에 375회 2016년 396회 등 총 1,512회이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활동/돌봄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은 668회로서, 전체활동 중 4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반을 넘는 비율로써 지역사회 YWCA 활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활동으로서 인식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 2) YWCA 내부 여성리더십(지도력) 활동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활동은 YWCA 내부 여성리더십(지도력) 활동으로서 전체 1512회 중 385회이고, 25.5%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임원과 이사 등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교육과 리더십 워크숍, 회원 특강이나 회원증모교육 등으로 이루어진 이런 활동들을 통해 지역의 여성들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지역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성장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YWCA가 해온 활동 기반 위에 YWCA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역할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이슈운동(지역에서/지역의)

세 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활동은 지역 이슈 대응 활동(운동)으로서, 총 315회이며, 20.8%를 차지한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지역여성운동’의 중요내용인 지역이슈에 대응 활동이 그리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에 따라 이슈가 발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슈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2014년부터 YWCA 중점운동으로서 결정된 탈핵운동 등은 지역주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주요이슈로서 전 회원 YWCA가 결의한 운동이라 할 때, 전체 활동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4) 여성주의/성평등운동

YWCA 지역여성운동 범주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여성주의/성평

등운동이다. 이는 전체 활동 중 144회로서 9.5%를 차지한다. 여성주의/성평등운동으로서 여성폭력반대운동이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개발, 직업훈련을 위한 활동들도 엄밀히 지역사회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성주의운동이라 할 수 있으나, 거버넌스 형태의 정부위탁시설 사업인 경우, 회원YWCA의 운동적 주도성 혹은 주체적 활동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범주 안의 활동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성주의/성평등 운동 관련 활동이 낮은 것은 지역여성운동의 핵심적 가치인 ‘여성주의/성평등’이 회원YWCA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YWCA지역여성운동 주요 사례

### 1) YWCA민들레회원조직운동

일명 ‘YWCA민들레운동’이라고 불리던 YWCA생명사랑공동체운동은 ‘YWCA 회원들의 일상적인 실천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속에서 생명과 여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영성을 회복하여 소그룹활동을 통해 배우며, 협동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지역사회공동체를 이루고, 확산하고자’<sup>5)</sup> 추진하였다. 이 운동은 1987년 부산YWCA, 1995년 청주YWCA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을 이어 2003년 제35회 YWCA 전국대회에서 건강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50/50사회 만들기, 평화세상 만들기 중 건강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하위 과제로 ‘생활운동 정착’을 전국 중점으로 채택하면서 소그룹공동체 조직운동으로 시작하였다. ‘YMCA 등대’라는 소그룹 회원운동의 모델로부터 영향을 받아 YWCA에 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하고, 2004년도에 가치지향의 YWCA 소그룹공동체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생명사랑공동체운동’으로 명명하였다.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은 ‘생명사랑의 가치를 생활 안에서 실현하는 공동체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민들레모임의 참여자들은 ‘회원’과 ‘지역주민’이었다. 먼저 환경강사, YWCA 청

5) 대한YWCA연합회 인력개발위원회(2005). 『YWCA생명사랑공동체운동 2005년도 실무조직가 심화교육과정 교육자료 모음』 박동순.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사례를 통해 본 YWCA생명사랑공동체운동의 전망』 pp.162~163.

소년활동 관련 지도자·봉사자, YWCA 이사·위원, YWCA 실무활동가 등 YWCA 활동을 직접 운영하는 회원들, 산모·가사도우미 교육수료자, YWCA 부설 어린이 집 자모, 각종 강좌의 수강생 모임 등 YWCA 활동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수혜한 회원들이 주를 이루고, 통장·부녀회장·반장 모임 등 지역을 단위로 조직된 민들레도 있었다.<sup>6)</sup> ‘성동마미울’, ‘가경동민들레’과 같은 지역단위 회원모임을 대표적 인 성공사례로 나누었다.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회원교육이 이루어졌다. 2011년 YWCA 전국대회 보고에 따르면, 회원들인 홀씨, 뿌리미교육은 전체의 32%인 17개 회원 YWCA에서 진행하였으며, 17개 회원 YWCA 중 3회 이상 시행한 곳은 9개 회원 YWCA로 나타났다고 한다. 홀씨, 뿌리미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16개 회원 YWCA는 인력 부족(17개 회원 YWCA), 내부 합의 부족(4개 회원 YWCA), 예산 부족(2개 회원 YWCA) 등을 들어 회원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2005년도의 실무조직가인 ‘바라미’들의 논의는 ‘지역’, ‘여성’을 화두로 고민하는 현재의 YWCA 고민과 맞닿아 있다. 당시 운동 정착을 위한 바라미들의 토론을 보면,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은 YWCA 회원들이 생명농업운동, EM운동 등 생명 관련 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역성’을 갖기 위해서는 ‘치열성’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민들레운동은 YWCA운동에서 YWCA 설립 초기부터 강조되었던 회원인 ‘여성’의 생활세계 문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변화에의 참여와 실천(‘운동성’)과 생활공간인 ‘지역’을 강조하였지만, 생활세계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을 넘어서는 ‘여성주의’ 관점의 운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지역 여성 회원 조직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실험을 지속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되었다.

## 2) 탈핵운동

한국YWCA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 후반부터 공해문제

해결과 환경오염 방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더 나아가 아나바다운동이라 일컬어지는 재활용운동과 쓰레기 줄이기, 식품 안전과 환경교육, 생명먹거리운동 등을 활발히 벌여나가며 일상적으로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 발효를 이용한 환경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2011년의 후쿠시마 핵사고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방지운동과 환경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왔던 YWCA의 운동 방향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YWCA는 2012년부터 생명운동의 핵심 방향을 ‘탈핵’으로 전환, 2013년에는 부산YWCA가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제안하여 52개 회원 YWCA가 탈핵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후쿠시마 핵사고, 가장 노후한 핵발전소로 10년 이상 연장가동을 하고 있는 핵발전소 고리 1호기의 사고 위험성 등은, YWCA가 탈핵운동을 이 시대 가장 절박한 운동으로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후 YWCA는 2014-2015, 2016-2017년, 2018-2019년 전국 중점운동으로 탈핵운동을 결의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YWCA가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탈핵운동이야말로 YWCA 활동 목적문에 있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YWCA 탈핵운동은 먼저 핵발전의 위험성과 부정의함, 그리고 탈핵운동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YWCA탈핵운동은 장기적으로는 핵발전소 의존적이며 공급 중심인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생활 속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과 자립 노력을 확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시민들이 핵 없는 생명 세상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YWCA는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되는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방사능에서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제정운동, 움직이는 탈핵학교 등 탈핵운동 역량 강화 활동,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YWCA 10만 서명운동과 기도회, YWCA 지역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워크숍,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영덕신규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원운동, 총선대비 탈핵 의제화 활동,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6) 대한YWCA연합회 인력개발위원회(2005). 『YWCA생명사랑공동체운동 2005년도 실무조직가 심화교육과정 교육자료 모음』, 『뿌리미 활동사례 나누기』, pp.207-216.

이러한 YWCA 탈핵운동은 결국 고리1호기를 폐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막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 이끌어내는 등의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탈핵운동을 통하여 YWCA운동의 잠재력을 확인하였고 운동방식과 정책제안 능력도 제고하였으며 시민사회에서의 YWCA 위상을 높이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그 가운데 가장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52개 YWCA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의 인식 및 활동력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물론 활동의 빈도나 범위에서는 차이가 나긴 하지만, 탈핵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YWCA 내부의 인식이 증대되어 52개 회원 YWCA 전체로 탈핵운동이 확산되었다.<sup>7)</sup>

이것은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로서의 ‘탈핵’이라는 이슈로 지역의 시민들과 만나서 교육, 설득과 공감, 지지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정책 변화를 이끌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지역운동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크나큰 의의가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대중적인 탈핵운동주체로서 YWCA 인지도와 정책 결정 영향력이 높아졌고,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많은 자극과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YWCA 탈핵운동이 지역의 YWCA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하였지만, 지역 YWCA 탈핵운동은 여전히 특정지역 탈핵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연대하거나, 지역사회 탈핵운동 연대단체와 함께 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YWCA가 지역사회 탈핵운동을 주도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발의할 만큼 전문적 인력과 예산,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장기적이고 지속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5~6년간의 YWCA 중점운동으로서 전국적으로 벌여온 탈핵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운동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탈핵에너지 전환사회의 핵심은 바로 ‘지역사회’가 핵발전과 화력발전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

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탈핵운동은 핵발전소 폐쇄나 건설을 중심으로 한 이슈운동으로부터 지역사회를 핵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핵발전이라는 거대 중앙집중적 시스템에서 지역에너지를 지역에서 스스로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차원의 발전된 운동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탈핵의 중요성을 알려왔던 YWCA 탈핵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요구를 확산시키고 수렴하며, 정책 제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의 힘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던 탈핵운동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YWCA 역할이 컸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여성이 ‘발화(發話)’의 주체가 되고, 여성리더십과 여성의 조직력 등 대중을 조직하고 행동하는 데 많은 능력을 발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노력은 동부지역 등 핵발전소 밀집 지역의 이슈 해결로 한정되어 있고, YWCA 여성들이 각 지역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각 지역사회에서 풀어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은, 지방분권화시대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며 특히 ‘안전’과 ‘공평함’이라는 생활세계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지역여성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3) 청주YWCA 여성주의 운동

1965년 창립한 청주YWCA는 당시 청주 지역의 열악한 여성들의 현실을 인정한 지역여성들로부터 시작됐다. 창립 시기에는 지도자 그룹이 형성되는 시기로 여성들의 계몽활동, 생활조건 개선, 복지활동이 주요 활동 내용이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여성운동의 대중화, 조직화 시기로서, 지역사회의 많은 여성들에게 폭넓은 영향력과 성과를 가져왔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여성운동의 제도화과정에서 청주YWCA는 위탁시설 중심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좁은 지역

7) 「한국YWCA연합회 제10차 탈핵생명위원회 회의록」 2017년 6월 28일 참고

의 특성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구성원 보수적인 기독교 문화 등의 영향으로 YWCA운동이 탈정치화되면서 오히려 전국의제나 교육활동 생활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지역이라는 공간성에 기반하여 여성주체를 형성한 여성운동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여성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 경제, 문화, 법·제도의 변화, 지역사회에서 성별 역할 관계의 변화는 주도적으로 이루어 내지 못한 면이 있다.

청주YWCA의 여러 활동 중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활동으로 '청주여성영화제'가 있다. 청주여성영화제는 1999년에 충청북도의 요청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19년 동안 진행하면서 기금의 성격이 이리저리 바뀌고, 기금을 받지 못해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시기가 있었던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지만, 여성영화제는 청주YWCA를 넘어 지역 여성계에 중요한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와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지 못하고 모금활동을 하면서까지 진행해왔다. '여성영화제'를 통해 여성주의를 표방한 행사가 행사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적인 소모임을 통해 지역여성들의 역량을 축적해 왔고, 또 YWCA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 조직으로 커가기를 의도하여 주체와 연대의 여성운동이라는 확장된 개념의 지향점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인 나, 당사자는 나,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으나 누군가(주류, 기독교, 남성, 중심)의 시선과 이야기의 편집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전해진다.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자기서사에 대해 중앙이 아닌 지역, 남성이 아닌 여성, 영웅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이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자신, 여성주의 관점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고 화해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이 되었다.

또 다른 활동은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화과정인 '여성주의학교'와 '기독교여성아카데미'이다. 여성주의 학교에 참여한 여성들은 "어렵고 불편하다" "페미니즘보다는 양성평등이나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다"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생각과 해석들이 기쁘다"며 여성주의라는 말을 생소하고 어렵게 느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사업 형태의 활동으로 여성들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4년 성평등정책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한 청주의 길과 도로 안전에 대한 모니터 사업, 그리고 2015년에 진행한 성평등한 도시공간 모니터링 사업은 '꼼꼼생활모니터단'을 조직하여 공적 자산으로서의 생활공간이 여성들의 신체적 정서적 조건에 안전한가라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시작했다. 꼼꼼생활모니터단에서 활동하는 14명의 여성들이 스스로 발품을 팔고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을 제안했지만 그 이후 환류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학가 원룸촌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들어가 안전한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안전'부문 모니터링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사업으로 성범죄 핫스팟지역인 3개 지역 모니터링사업과 학원 내 데이터폭력ZERO사업으로 대학생 서포터즈 조직, 불법촬영아웃사업으로 학원가와 공용화장실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밤길 다니는 것이 위험한 여성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임에도 낯설고 무서운 여성들, 평등한 연애를 꿈꾸었으나 의심하면서 삶을 지켜내야 하는 여성들, 단돈 1만원도 들지 않고 누구나 설치하고 유통할 수 있을 만큼 손쉬워진 불법촬영(몰카)을 피해 화장실에서 커튼을 치고, 화장지로 구멍을 막고, 또 다른 구멍을 찾아 실리콘으로 메우고 있는 2018년 지금, 여기에 여성들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관계를 평등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과제는 결국 이곳에, 안전하지 않은 마을에 살고 있는 불안한 지역여성들의 몫이다. 다만 이 문제가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성별 권력 관계에서의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고, 공공성과 사회정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여성운동에서 YWCA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은 불평등한 자원분배 구조와 공간적 위계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지역의 불평등성과 성별의 불평등성이 더해져 지역여성운동은 다양한 의제에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자원동원방식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청주YWCA 창립 이후 선각자적 리더들에 의해 시작되고 대중적 지역여성들에 의해 형성된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말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수요를 YWCA는 폭넓게 수용하고 담아낼 수 있는 활동의 공간을 제공했다. 여성들의 경험과 문제의식, 가치들이 주변화 되고 드러

나지 못했던 점에 주목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 대중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왔다. 대중화된 활동의 결과가 여성, 청소년, 혹은 사회적약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역여성운동의 담론이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6. YWCA지역여성운동 전략 수립을 위한 질문들

이제 YWCA는 어떻게 ‘지역’과 ‘여성’을 중심으로 지역여성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 고민은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데 “YWCA는 어떻게 지역 중심의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와 “YWCA는 어떻게 여성 주체로서의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지역과 여성을 중심으로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운동을 수행해온 YWCA였지만 현재 급속히 변화하는 이슈와 지역의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새롭게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질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YWCA는 어떻게 여성 중심의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지역에서 여성운동의 다양성과 차이에 따른 지역여성운동의 정체성 찾기, 회원들 간의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효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조직의 확대와 분화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 강화, 장기적인 전망수립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 지구화, 지방화시대의 이슈를 중앙의 허부단위가 아니라 자율적인 주체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단위로서 어떻게 지역화할 것인가? 회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삶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가 주체로서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성장해나갈 것인가? 또한 회원들이 주체가 되는 소통이 원활한 조직구조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동의 세력화를 위한 조직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등이다. 다른 시민운동 단체에서 항상 연대하기를 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는 YWCA

이지만, 다양한 지역이슈를 제발하고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을 철저히 직면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YWCA가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해왔던 다양한 수고와 노력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제도화로 결실을 맺었고, 지역에서 시작된 EM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환경을 지키는 YWCA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전지구적인 이슈인 탈핵을 연합회가 중점운동으로 선정하여 전 지역에서 함께 활동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YWCA는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제도화되는 등의 결실을 이룬 이후 시의적절한 사회적 운동의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힘을 쓸 여력이 없어 손을 못 대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다. 기존에 제도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급급하여 지역여성운동단체로서의 운동성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YWCA의 운동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YWCA는 어떻게 여성 주체로서의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성 중심의 의제를 개발하고 여성이 주체로 운동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왜 다시 그 문제를 깊이 논의해야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미투운동을 비롯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몸부림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회원 구조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회원 구조는 여성주의 등 주체의 문제를 다루는 데 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운동을 펼쳐가는 YWCA 내부적으로 ‘성평등운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충분히 논의되고 확산되지 못하여 성평등 사회를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여성과 함께 제대로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소외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이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기독교가 교리를 가지고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와 여성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00주년을 앞둔 YWCA는 오래된 시민운동조직으로서 제도화된 조직과 다수의 회원 등의 외부적 위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의 특성 때문에 민

감하고 신속하게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의식이 둔해진다면, 100주년 이후 YWCA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수 없다. 이제는 어떻게 YWCA를 재조직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함으로써 초기 YWCA 선배들이 가졌던 선구적인 역할들과 운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YWCA는 늘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갔다. 급속히 변화되는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YWCA를 간절히 소망한다.

#### 글을 쓴 **곽지영**은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이며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YWCA연합회 아카데미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 연구'와 'YWCA 지역여성운동 연구'를 수행해 왔다.

# YWCA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해야 하는가

#### 이숙진

한국YWCA연합회 아카데미 위원, 이화여대 교수



## 1. 무한 경쟁시대의 지역문제

26개 자치구로 구성된 서울은 나날이 팽창하는데, 지방은 점점 작아져 자연소멸을 우려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나 그 규모에 따라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은 각기 다를 것이다. 공통점은 모든 지방이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7년의 보고서에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30년 후에는 지자체의 30%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파주시 진동면에는 2013년 이래 출생률이 제로이고, 기초단체 중 65세 이상의 주민이 30%를 웃도는 기초단체가 26곳이나 달한다. 인구가 줄어드니 연쇄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주민편의 시설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결국 학교까지 폐교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새로 유입되지 않게 되고 결국 빠른 속도의 인구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오랜 과제들에 밀려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민족의 당면과제인 남북평화 통일 과업이나 적폐청산과 실질적 민주화 문제에 비해 지방 소멸은 문제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까지 어찌할 수 있는지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구학자들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자들, 학계에서는 급격한 지방의 과소화 혹은 공동화 현상이 우리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낙후된 지역의 인구 공동화로부터 시작되는 지방 소멸 징후들은,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면, 읍, 군단위로 확산될 것이며 나아가 인근 지방 소도시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폴 윌리스(Paul Willis)는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사회에 끼치는 충격을 ‘인구지진’으로 표현한다. 한국기상청은 1978년에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16년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가장 큰 강도(리히터 5.8)라고 보도하였다. 그 이듬해 2017년, 국가 대사인 수능일까지 연기해야만 했던 포항 지역의 지진은 리히터 5.4 정도다. 그런데 윌리스에 따르면 인구지진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리히터 규모 9의 강도다. 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경우는 윌리스가 지적했던 인구감소와 노령화뿐만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가동까지 겹쳐져 더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지방 거주민들은 왜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할까. 이동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KTX를 비롯한 교통시스템의 발달 때문이다. 값싸고 좋은 물건이 있는 서울에서 쇼핑하고 볼일 보고 내려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생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좀 더 살펴보면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적 가치가 삶의 전 영역에서 스며든 오늘날, 지방살이는 일자리도 부족하고 취업에 스펙을 쌓기도 불리한 곳이자 경쟁에서 뒤지는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인구의 경우 서울로의 이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몰려드는 곳은 노량진이다. 청년인구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량진에는 밤낮없이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이하 취준생)이 환경이 열악한 강의실을 메우고 있다.

취업시장에서의 살인적인 경쟁률은 취준생의 엄혹한 현실을 말해준다. 안정된 직업으로 선호되는 공무원 지원 시험의 경우 최소 경쟁률이 60대 1이다. 2018년도 서울시의 일반행정직 9급 시험에는 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률이 보여주는 것은 시험의 합격 여부가 노력 부족이나 실력 부족이 탓은 아니라는 점이다.

늘어가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은 취준생에게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종종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서울시는 취준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취준생의 70%가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했다. 한 취준생은 인터뷰에서 만성적인 불안감과 무력감을 토로하면서, 하루 13시간 동안 매일 빠짐없이 공부에 매진해서 무조건 붙는다면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변한다.

2017년 광주과학기술대학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국 대학생 천명에게 ‘고등학교에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를 고르게 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쟁”이라는 답변이 중국 41.8%, 일본 13.8%, 미국 40.4%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무려 80.8%를 기록했다.<sup>1)</sup> 엄청난 경쟁과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낳은 풍속도다.

학교에서나 취업시장에서 형성된 경쟁문화는 과히 살인적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 또 누구와 경쟁하는지 반문할 필요가 있다. 선의의 경쟁이 발전으로 귀결되는 시절은 끝난 듯하다. 1982년도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뽑혔던 ‘팔꿈치사회’(Ellenbogengesellschaft)라는 신조어가 우리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다. 반칙임에 틀림없지만 옆 사람을 팔꿈치로 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세태를 일컫는 용어다. 달리기를 할 때 옆 사람을 앞서기 위해서 팔꿈치를 사용하는 행태에서 착안한 말인데, 치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회를 적절하게 묘사한 셈이다.

이쯤에서 우리 YWCA는 이러한 반생명적이고 비인간적인 경쟁문화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할 적이 있는가, 비인간화, 반생명적 경쟁사회에 대하여 기독교는

1) 「무한경쟁이 불신 키우는 한국사회... 대학생 81% “고교는 전쟁터”」 <서울신문>. 2018년 8월 2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02800068&wlog\\_sub=svt\\_02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02800068&wlog_sub=svt_023)

과연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대중적 신앙서적을 보면, 무한경쟁의 브레이크를 밟기는 커녕 오히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기독교는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따라 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신앙적 방법으로 공부하면 누구나 일류대에 갈 수 있고,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신다는 미술봉같은 대중신앙이 팽배해 있다. 만약 원했는데도 얻지 못한다면, 믿음의 부족 탓이 된다. 가령, 자녀교육 지침서로 활용되는 『다니엘학습서』는 새벽기도, 헌신, 자기관리 등 신앙적 방법을 철저하게 따르면 고득점을 얻어 입시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무한경쟁으로 몰아가는 교육제도가 비기독교적임을 드러내는 발본적 문제제기가 지워져 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대중적 신앙담론에는 세속적 욕망이 신앙의 대상으로 둔갑하고, 신자유주의적 자기 계발의 메시지가 시대의 복음으로 회자되고, 자기 계발적 주체와 신앙적 주체가 갈등없이 조응하고 있다. 이렇듯 경쟁의 원리가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 종교에 이르기까지 내재화된 무한경쟁의 사회에서의 생존 전략의 하나로 청년들의 탈지방화와 서울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인구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떠한 현상이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성찰이 요청된다.

## 2. 젊은 여성의 탈지방화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특히 젊은 여성의 탈지방화가 심각하다.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는 인구소멸지수 산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39세 젊은 여성의 이탈과 노년인구의 비율 관계가 지방 소멸의 정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점이 된다. 이 지수에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 지방 소멸 문제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다. 현재 지방 소멸은 청년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의 사안과 연동된 총체적 문제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지방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인구를 유지하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이 한시적인 공공근로 확대에 그치고 있고, 인구정책 역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집중하는 정도다. 이러한 임기응변식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에 그칠 뿐 근본적 해결방안이나 치유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지역이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존속하는 해법은 그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행복이란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복지적 차원의 정책과 연동되어 느끼는 삶의 만족감이다.

우리는 먼저 왜 젊은 여성들의 지방 이탈률이 높은지 그 현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간명하게 답하자면, 바로 여성이 살기에 안전하지 않고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근거로는 성평등 감수성 제로인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말해준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체에서는 7080세대의 관광 유치에 위해 큰 돈을 들여 ‘추억의 청춘 뮤지엄’을 오픈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전시된 것에서 도대체 젠더감수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전시된 것 중에는 여학교 앞 바바리맨과 여탕을 훑쳐보는 남자 조형물이 있다. 박물관 2층에는 관람객이 지나는 통로에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서 있는 거대한 여성 조형물이 있는데 관람을 위해선 여성의 다리 사이로 걸어가야만 한다.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속옷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한마디로 젠더감수성이 제



경기도 '0지자체'의 '추억의 청춘 뮤지엄' 조형물 (출처 : <경향신문>)

로인 사업이다.<sup>2)</sup>

이 밖에도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지방법원의 편파적인 판결이나 여성을 도구적으로 여기는 경향은 저출산 인구정책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20~140조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 과연 이 시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출산이 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현재도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여 심각한 상태의 청년실업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4차 산업 사회가 본격화되면 자동화 시스템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때는 일할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남아돌 것이고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혹자는 노인인구에 비해 젊은이가 부족하여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낮은 출산율보다 이미 다 자란 청년들이 불행하다는 데 있다. 3포, 5포도 모자라 심지어 희망까지 포기하는 젊은이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가장 급선무는 이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 저출산으로 인해 훗날 세금납부자가 적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다면 세금 납부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세금문제는 부자증세 등 부의 재분배로 해결할 문제이다.

지방정부는 출산장려정책 대신에 여성들을 위한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 탈지방화가 완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만족할 만한 여성정책은 부재하고 여성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다. 왜 행복하지 않는가? 2018년 젊은 여성들은 여성혐오 범죄와 함께 ‘맘고리즘’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맘고리즘’은 ‘맘(Mom)’과 ‘알고리즘(Algorithm)’의 합성어로, 출산, 육아, 직장, 돌봄 위탁, 퇴사, 경력단절, 자녀결혼, 손녀손자 출산, 황혼육아 등 여성이 생애 주기에 따라 육아를 반복하게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YWCA에서도 끊임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법안의 재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시간제 아이돌보미 등 프로그램이 개발되지만 대개의 경우 유명무실하다. 여전히 여성들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육아로 출근하는 고달픈 일상

2) “성범죄가 재미있는 7080추억?”-관람객 기본 맞치는 지역 박물관, <경향신문> 2018년 8월 1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0170400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01704001&code=940100)

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으면서, 여성을 아기 낳는 도구로 여기는 저출산 대책에만 세금을 쏟아 붓는 기이한 정책을 조롱하며 “정부가 아무리 나대봐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라는 구호도 등장했다.

젊은 여성들이 이토록 절박하게 출산과업을 하는데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저출산대책의 방향은 잘못되었다. 지자체가 저출산대책으로 의미 없는 이벤트식 행사에 사용한 사례는 경북지역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2014), 충남 미혼남녀 연애편지(2016), 경북 교육감배 출산장려 청소년 개사 경연 ‘아이를 낳아놓아놓아’, 광주시 출산장려 인구시계탑 등이 있다. 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기금으로 82억 사용(2016), 기초지자체 생일맞이 직원 청장과의 간담회 비용 16억6천만원, 청년해외취업촉진 410억, 흡연 음주 등 유해 형태 예방사업 832억 등의 사용은 저출산정책 예산으로 출산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낮은 젠더감수성으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항의하는 젊은 페미니스트들 (출처 : <경향신문>)

대개의 지방정부들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 기준이나 인구증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기초하여 지역 인프라 구축과 확장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인구수가 예측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택지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도 현재 추세와 달리 과도하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예측 아래 지역주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인구는 52만 인데 지금 추세로 가면 2047년엔 42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2017년 포항시는 3년 후인 2020년에 30만이 더 늘어 85만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렇게 부풀려진 인구에 따라 지방예산이 투입되고 결국 예측 실패로 부도가 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지방정부는 또 주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지자체별 도시계획에서 인구를 부풀리는 경향은 여러 지자체의 공통된 특징이다. 올 여름 제주도 비자림로의 가로수가 속절없이 잘려나갔다.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확충하기 위함이다. 관광객은 청정 제주도의 풍광을 보기 위해 몰려들지만 결국 풍광도 청정함도 다 해치는 일들이 지방정책사업으로 진행된다.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한 결과다. 자본의 논리에 포획된 전국 각지는 제2의 비자림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그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잃는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관광객이 찾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개발의 역설이다.

지방의 여성정책이든, 인구정책이든 간에 이 모두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시안적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이 고안되고 실행될까. 지자체 단체장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현 국회의원의 통계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2018년 현재 국회의원은 남성이 83%, 평균재산 44억, 평균연령 55.5세다. 50대 중반 중상류층 남성들이 과연 일과 가정일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이 동등거리는 일상을 알거나 할까? 맘고리즘의 비애를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할까 의문스럽다. 정책 입안자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실행까지는 한계가 있다.

종종 외신으로 다른 나라의 국회 모습을 접하게 된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품고 있다. 뉴질랜드 국회에서 수유하며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일 가정 양립정책 실행의 모델이 된다. 아기를 안고 회의를 진행하는 남성 국회의장의 모습은 남성의 양육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라는 어떠한가. 여성 과소 대표, 남성 과대 대표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 여성이 하는 정치는 실종된다. 그러나 지역 정치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여성의 실제 생활이 바뀔 수 있다. 여성의 참여는 어느 정도가 좋을 까. 그동안 남성들이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하는 자리를 독식했으니 20%, 혹은 30%를 나눠주는 수준으로는 미흡하다. 지금까지 '나누기'가 불평등했으니 제대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일종의 성주류화인데, 성별감수성에 기반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성평등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성주류화에 우리 YWCA가 앞장서면 어떨까. 그래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면 지역공동체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지역 정치에 참여하여 생활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며, 안전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 정책의 입안을 도모하는 일에 지역 YWCA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젠더지표는 누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정의의 원칙을 정하기 위한 토론의 장에 누가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로 결정된다. 지역 공청회에 참석하여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될 것인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모두 남자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후보자도 모두 남자로 내세웠다. 경선의 결과이니 여자들도 도전하고 싶으면 실력이나 쌓으라고 했다. 하지만 과연 경선을 치렀다고 평등한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사회는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의 길에는 난관이 많다. 남성리더가 저지르는 실수나 능력부족에 대해선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만, 여성리더에 대해서는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며 여성집단의 문제로 비약한다. 남녀동수내각에 대한 요구에도 “적합한 여성인재가 없다”는 지겨운 변명만 반복할 뿐이다. 캐나다 트뤼도 수상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내각의 성비는 남녀동수다. 한 기자가 트뤼도 수상에게 왜 남녀동수내각인지를 질문했더니 수상은 “2015년이니깐요!” 라고 명쾌하게 답하였다. 한국사회의 남성 기득권자들은 인재가 있어야 자리를 만든다고 강변하지만 자리가 인재를 만드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

### 3. 지역여성운동의 중심, YWCA

여성운동단체로 96년 역사에 지금 현재도 전국 52개 지역적 기반의 광대한 회원 조직을 가진 YWCA는 엄청난 저력이 있다. 우리가 하고 있고, 해왔던 중점사업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성평등운동의 기원은 초창기 선배들이 거리로 나가 축첩제 폐지를 외쳤던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가족법 개정으로 열매를 맺었다. 여성들의 연대 사업이었지만, 연대서명으로부터 가두시위, 홍보, 압력 단체로서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YWCA의 저력이 아니었으면 빠른 성취를 얻지 못했다.

생명살림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민들레운동은 2004~2009년 YWCA주력운동이었고, 269개로 조직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육아운동, 먹을거리 운동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약화되었지만 지역 기반의 가치 지향의 소그룹 조직운동인 민들레운동은 지역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도 통하는 것으로 살인적인 경쟁시스템에 휘말리는 대신에 대안적 공동체 운동으로 전환할 잠재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살림운동은 YWCA의 대표적운동인 탈핵운동에서 의미있는 성취를 이루었다. 부산, 울산, 경주 지역의 YWCA뿐만 아니라 52개 모든 지역 YWCA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다. 이뿐 아니라 돌봄복지운동도 지역사회에서 YWCA가 견고한 위상을 갖게 하는 운동이다.

특히 탈핵과 성평등운동이 부상한 2014년부터는 탈핵 운동의 일환으로는 지역 에너지 절약과 생산활동 및 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고, 성평등 운동의 경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성인지 정책 정착'을 위한 교육과 '여성폭력 예방' 운동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기조는 2016~2017 운동 정책인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라는 주제 아래 지속적으로 견지되었다. 2018~2019 운동정책 역시 지역과 여성의 관점을 접목한 '탈핵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지역사회 만들기'와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양대 과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YWCA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운동의 방향이 52개 지역 YWCA에서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지역여성운동 프로그램과 활동현황을 통해 실제로 지역YWCA는 어떤 운동에 주력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다.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는 최근 4년 동안 (2014~2017) 한국YWCA연합회가 발간한 월간 『한국YWCA』를 분석하였다. 그 속의 보도되거나 언급된 활동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빈도수를 조사한 것이다. 요컨대 여성주의나 성평등 이슈, 사회서비스(가사/간병), YWCA 내부 여성 리더십, 지역이슈 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활동이 '회원활동소식' 코너에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가사, 간병 등)활동은 51.6%, 내부 여성 리더십은 22.5%, 지역이슈는 17.6%이다. 이에 반해 2014년 이래 중점사업으로 삼은 여성주의 성평등에 관한 활동유형은 8.3%로 제일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통계를 보면, 과연 YWCA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임을 자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지역 YWCA가 사회서비스 사업에 치중할 때 생기는 명암이 있다. 일단 이 사업에 치중할 때의 장점은, 안정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의 삶과 직결된 대중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적이기에 회원의 저변 확대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반면, 치명적인 단점은 첫째, 지역 YWCA의 재정 유지를 위하여 프로젝트형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경쟁적으로 수주를 하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에너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수주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단점은 운동가로서의 YWCA활동가 정체성이 약화되고 점점 실무자화가 된다는 점이다. 수익사업과 서비스에 매달리다 보니 지역 YWCA가 지향해야 할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활동가 본연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게 된다.

과연 지역여성운동의 중심인 YWCA의 현재모습은 어떠한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과 청년 여성의 탈지방화 문제에 어떤 저항적이면서도 대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지역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범죄에 어떠한 대책을 고안하고 있는가. 여성시민단체로서 지방정부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여성친화적인 지역

으로 선도하고 있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위드유운동을 계기로 성평등운동을 확산하고 있는가에 대해 지역YWCA는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YWCA 활동가들이 과연 행복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해보자. 의무감으로 운동(Movement)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YWCA를 통해 YWCA 공간에서 새로운 것을 깨우치게 되고, 서로 배워서 즐겁고 내 삶과 우리 삶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분명 지역YWCA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지역여성운동의 중심지인 YWCA의 52개 회원YWCA의 방향성을 되새겨 보자.

**Young** : 청(소)년과 함께하는 YWCA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입시경쟁과 스펙경쟁의 시스템이 초래하는 죽음의 문화를 상생의 문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어른들께로부터 어릴 때부터 빈번하게 들던 질문이다. 질문에 즉각 답을 못했던 아이는 이후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받으며,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된다. 과학자, 의사, 교사, 군인, 대통령 등은, 1960~7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 되고 싶어 한 직업군인데, 2018년에도 같은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공무원, 건물주라고 답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을 수없이 받고 하지만,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한 적은 거의 없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떠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가. 자신들이 살고 싶은 사회를 상상하는 힘을 키우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결정할지도 모른다. 미래세대와 함께 우리 YWCA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Women** : 여성과 함께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YWCA가 되기 위해서는 젠더감수성 계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정부가 과연 성평등적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Christian** :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최선을 다한 것처럼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에너지 자립 지역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식주의 일상적 기본 생활의 반생태적 환경에 민감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무한리필의 육식문화를 가능하게 한 공장식 밀집사육 시스템과 값싸고 트렌디한 옷을 과소비하는 패스트패션은 실은 생산지 노동여성의 저임금과 오염된 환경과 연동되어있음을 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컨대 탐욕스런 의식주 생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Association** : 연대를 통해 공공성 회복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과제가 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를 전망하며 정치적 평화(Pax Politica)를 넘어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를 위해 피스메이커(Peacemaker)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YWCA의 과제다.

#### 글을 쓴 이숙진은

한국YWCA연합회 아카데미 위원이며, 이화여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기독교 여성윤리, 종교와 페미니즘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기독교와 여성정체성』, 공저로는 『민중신학의 여정』, 『종교는 돈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미디어와 여성신학』, 『한국여성종교인의 현실과 젠더문제』,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 『민족과 여성신학』 등이 있다.



## 편집후기

김신애 김수진 김은경 원영희 조진경 조혜영

**김신애**  
『여·세』 편집위원

내 기억에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쉽게 인정받은 페미니즘은 없었다. ‘페미니스트’는 몇 번이나 “가정과괴범”, “재수없이 나대는 여자들”, “못생기고 이기적인 X”, “결레”, “독한 것들”이라는 비하를 거쳐 마침내 멸칭이 되어갔다.

모 CF에서 “돼지털? 디지털!” 하던 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PC통신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해방의 공간으로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10대, 20대가 경험한 디지털 문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일찌감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했음에도 메갈리아와 워마드의 부상, SNS를 기반으로 한 페미니스트 선언과 미투운동, 강남역 2번 출구와 불편한 용기, 낙태죄 반대시위 등 일련의 흐름에 내가 동시대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는 못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나는 늘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이 궁금했으며 그 중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취사선택했다. 열렬하게 공감하며 지지할 때도 있었고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과 논쟁으로 부대끼기도 했다.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페미니즘과 선량하기만 한 페미니즘과 독한 페미니즘과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페미니즘 등이 잘 차려진 뷔페처럼 연이어 등장했다. “그것도 페미니즘인가?”라는 질문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존재는 존재하고 말하고 쓰기를 계속하는 한 ‘주체’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멋진 주제를 다뤄 준 『여·세』 6호에 박수를 보내며 디지털/아날로그의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굳건하고 당당하게 “Yes, We Are Feminists!”를 선언하여 마침내 오롯한 연대로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수진**  
『여·세』 편집위원

‘노출이 심한 옷 입지 않기’,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기’,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해 다니기’, ‘공중화장실 조심하기’... 여성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했고, 지켜야 할 것이었으며,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여성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가르침은 ‘당연함’이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 ‘김치

녀’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나를 포장했고, 화장실에서 찍히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긴장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조심했다. 『여·세』 6호를 읽는 시간은 개운함과 잃어버렸던 나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나의 ‘당연함’은 ‘부당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91년생’ 민주화가 이뤄진 후 남녀평등 사상이 확산하는 시기에 태어난 나는 이론상 남녀평등을 배우며 자랐다. 하지만 마주하는 일상에서는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결코 평등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불평등을 넘어 이제는 ‘묻지마 범죄’, ‘여혐 범죄’에 살해당하는 지경이다.

‘당연함’을 ‘부당함’으로 느끼며 깨어난 젊은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혜화역 시위에 참가한 한 청년의 말을 빌어본다. “왜 이렇게 당연하고도 정당한 말을 하기 위해 이토록 애를 써야 하며 분노하고 외쳐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개인이 아닌, 공동의 문제임을 깨닫고 함께 연대하며 싸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했던 나와 우리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은경**  
『여·세』 편집위원

소위 386이라 불리던 81학번 여자의 삶이 81년생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또 그 시절도 지나 18학번 새내기 딸들의 삶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묻는다. 물음은 학습의 시작이자 끝이라 배웠기 때문이다. 물음을 통해 시간이 만든 답답함을 해결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물음이 더 큰 ‘사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제 답답함이 아닌 답을 찾고 싶다. 이번 『여·세』 6호를 통해 우리의 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엄중한 시기에 YWCA의 지도력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데 한 줄기 빛이기를 소망해본다.

**원영희**  
『여·세』 편집위원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가장 당돌한 페미니스트는 와스디 왕후 아닐까? 와스디는 총 10장으로 구성된 에스더기 1장과 2장에만 등장하고 사라진다. 에스더는 바로 이 와스디를 이은 왕후로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에스더 4:16)의 주인공이다. 용기있는 여성이 둘이나 나오는 에스더기,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아내의 미모를 대중 앞에 자랑하려던 왕의 명령에 불복한 와스디이다. 당시 이런 명령 불

복종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즉결처분도 가능한 행동이었다. 와스디는 이후 어찌 되었을까? 당연히 폐위되었다.

『여·세』 6호 원고를 꼼꼼히 읽으면서 명동길에 YWCA깃발을 흔들며 미투행진을 하던 순간이 생각났다. 우리에게겐 전후좌우 마치 코르셋처럼 우리 여성들을 조여 오는 아주 다양한 불평등과 역시 다양하고 인정머리 없는 성폭력에 저항하고 성평등 방안들을 법제화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길 밖에 없다. 여러 글 속의 용어와 사례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 『여·세』 6호를 기반으로 향후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페미니즘 사례도 더욱 깊이 있게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 조진경 『여·세』 편집위원

십대여성인권센터를 통해 매일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또 다른 이야기를 『여·세』 6호에서 글로 만나면서 가슴 한편이 또 아려왔다.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온라인 세상에서도, 평등하고 차별 없고 폭력 없는 세상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나를 포함한 우리 어른 세대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이다. 그럼에도 Y-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YWCA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마주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새로운 열망을 품어 본다. 오늘 『여·세』 6호를 통해 1020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처럼 함께 걸어간다면, 그 멀기만 한 평등하고 폭력 없는 세상이 한 발짝 더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 조혜영 『여·세』 편집위원

지난 여름 강릉에서 여성회의가 열렸다. 젊은 페미니스트와 시니어 페미니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리였다. 마지막 느낌 나누기 순서에서 어떤 20대 페미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고 관심 갖고 궁금해 하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선배들이 사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 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 페미니스트로 살아도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 달라. 잘 살고 있다고 자랑을 해 달라. 우리가 살아갈 삶이므로...”

『여·세』 6호를 기획하면서 우리는 1020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온몸으로 페미니즘을 외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보고자 했던, 궁금해 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그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자랑하면서 보여줄 수 없음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아울러 ‘여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여·세』 6호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여성이 살리는 세상  
제6호

『여·세』는 여성의 꿈을 담아 여성의 힘으로 이웃과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갈망과 지혜를 수렴하는 장입니다.  
『여·세』구독 신청해 주세요.

진  
편

## 구독 신청서

### 신청하시는 분

이름: \_\_\_\_\_

전자우편: \_\_\_\_\_

주소: 우편번호( ) \_\_\_\_\_

유선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책 받으실 분  위와 동일할 경우 체크

이름: \_\_\_\_\_

전자우편: \_\_\_\_\_

주소: 우편번호( ) \_\_\_\_\_

유선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연락처 TEL 02-774-9704~5 FAX 02-774-9724  
(우)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여·세』편집팀

정가 12,000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여·세』의 형태로 입금해 주세요.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전자우편(ywcaacademy@naver.com)으로 보내실 때도 양식을 참조하여 주세요.

